

# 韓國大學 看護教育課程의 發展을 爲한 一基礎研究

연세의대 간호학과 崔 益 道

## 1 緒 論

教育課程이란 모든 教育에 있어서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里程碑가 되는 것으로서 學生이 學校指導下에 經驗하게 되는 모든 計劃된 學習經驗을 말하는 것이다. 이 教育課程에 對한 새로운 概念은 教育課程을 教育內容으로 보기보다 生活 經驗으로 보고있어 그때 그때의 問題를 解決해 나갈으로서 安全하고 幸福된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는데 必要한 理解와 機能 그리고 態度를 形成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看護 教育을 爲한 教育課程도 看護의 必要性과 大學看護教育의 必要性에 그 基礎를 두어야 하는데 大學看護教育의 目的이 專門職看護員을 길러 냄에 있고 보면 大學看護教育의 구실은 專門職看護員으로서의 機能을 보다 効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일이라 하겠다. 스티퍼는 말하기를 專門職看護員이란 一般的이고 專門的인 教育을 받은 사람으로서 患者의 治療와 疾病의 豫防 또는 健康增

進을 爲해 保健要員으로서 參與할 수 있도록 準備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바꾸어 말하면 專門職看護員이란 科學的인 專門知識의 所有者로서 이란 士藹로 하고 一般的인 科學的 進歩와도 步調를 맞추는 한편 社會와 個人的 看護에 對한 要求에 直面할때 그 知識을 應用할 수 있는 사람이고 健康한 사람이거나 病者거나 간에 그들의 健康에 對한 基本要求를 認識하고 理解하는 사람이라고한 이 見解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하면 專門職看護員이란 專門分野의 知識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의 廣範한 知識이 要求된다고 하는 事實을 認定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大學看護教育의 充實은 爲해서는 學的 補充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現大學看護教育課程이 그 構成과 運用에 있어서 얼마나한 實効를 거두고 있는지를 把握하기 爲해서는 教育의 核心이 되는 教育課程의 基礎的 檢討가 要求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看護教育이 大學課程으로 發展을 보게된 것은 不過 10年內外의 일

註 1) Ruth sleeper; "what kind of nurs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52: 828

로서 그課程의 大部分은 舊制 看護學校를 前身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現在 大學看護教育에 對한 認識도 오랜 傳統의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敎育課程도 外國의 看護教育內容은 參酌하여 그 長點을 取하고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하려는 努力이 기우러진 것이기는 하나 그 計劃과 組織 그리고 運用에 있어서 傳統 或 時代의 潮流, 或은 推想의인 首肯으로 받아드려 科學的인 檢證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矛盾과 問題가 內包되어 있으리라 豫想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問題로서 韓國의 看護敎育課程에 關한 아담스(Adams)의 報告한 바를 보면 우리나라의 看護敎育課程에 對한 客觀的인 資料를 얻기 힘 들었으며 全國看護學校의 半數以上이 미리 計劃되고 잘 짜여진 敎育課程이 없는것 같고 단지 保健部에서 시달한 案을 使用하고 있는것 같다고 하였으며 特別 臨床經驗에 關한 量과 型을 決定짓기가 힘들었다고 한 事實을 이미 數年前 學校調查로서 얻어진 概括的인 評이라고 지나쳐 버릴 수만도 없는 것이며 또한 指導의 立場에 있는 大學看護敎育課程의 發展을 爲해서도 이 點은 特別한 注意를 喚起시켜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現大學看護敎育課程이 當然 위에서 말한바 專門職看護員을 길러 내기에 妥當한 것인지? 萬一妥當한 것 이라고 한다면 그 妥當性을 認定할만한 研究의 뒷받침이 있는 것인지를 우선 確認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敎育過程의

基礎가 되는 學生에 對한 理解는 어떠한 지? 그리고 看護事業이 人類에의 奉仕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于先 우리社會에 보다 有效하게 貢獻할수 있게 하기 爲해 우리社會의 現實的인 要求는 어느程度로 反映되고 있는지? 學問의 內容도 目的達成을 爲해 滿足할만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實驗을 根據로 한 것인지? 萬若 이 모든 것을 基礎로 하고 目的達成을 企圖하였다 할지라도 敎育目的의 里程表가 되는 敎育課程은 果然 實用性있게 구겨진 것인지 등을 檢討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看護敎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過程에 있어서 敎授는 學生들의 學習經驗을 選擇하고 刺戟하며 指導하고 評價하기 때문에 結局에 있어서 敎育課程을 發展시키고 그 向上을 爲해 改善을 하게 되는 것은 現在 看護敎育을 擔當하고 있는 敎授들의 責任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 研究는 大學看護敎育課程에 이바지 하게될 敎育課程構成의 諸般 基礎原理를 確固히 하기 爲해 敎聯課程에 關한 여러 文獻을 考察하였으며 또한 漠然히 指摘되고 있는 現敎育課程의 構成 및 運用의 實際의 矛盾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爲해 各大學看護學科의 課程表와 敎育實施狀況을 調查하였으며 이를 分析하여 나타낸바,

問題에 解決方案을 摸索해 봄으로서 우리나라 大學看護敎育課程發展에 이바지 하게될 向上策을 圖謀하는에 本 研究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本 研究의 目的이 現行 우리나라 大學

註 2) Mildred P. Adams, et al.: Report on Survey of School of Nursing in the Republic of Korca, Seoul, 1960, p.22

看護教育課程의 實態를 把握하여 各 評價를 내리고 理論과 合致할수 있는 向上策을 模索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予先 理論의 根據를 確固히 하기 爲해 教育課程에 關한 여러 文獻을 考察함으로써 教育課程의 構成 및 運營의 理論의 基礎를 세웠고 現大學看護教育課程의 實態를 把握하기 爲해 本 研究에서 對象으로 한 세 大學의 學校要覽, 學校案內 및 1965 年度 教育實施案 等에 나타나있는 學程 表現況을 調査하였으며 이에 對한 看護 學擔當教授와 學生들의 意見을 알아보기 爲해 質問紙法을 使用하였고 現在 看護 教育行政을 擔當한 教授와의 面談을 通하여 現教育課程에 關한 여러가지 資料를 얻었으며 이를 綜合하여 現大學看護 教育課程의 實態를 把握하였고 이를 分析함으로써 나타나야 問題에 對한 筆者의 見解를 表明하였으며 끝으로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課程의 發展을 爲한 提議를 함으로써 本 研究를 맺었다. 그리고 教授와 學生의 意見調査를 爲한 質問書 發送 對象校는 國內四個大學 看護學科中에서 二個私立大學과 一個國立大學 看護學科로 하였는데 이 對象은 우리나라에서 大學看護教育을 제일 먼저 始作한 學校와 또한 가장 긴 看護教育의 歷史를 가진 學校라는 理由에서 위 三個大學校의 看護 學科만을 選擇하였으며 教授도 위 大學 看護學科에서 看護學科目을 擔當한 教授만을 對象으로 하였는데 各 學校의 教授는 極히 少數에 不遇함으로 實地로 看護 學科目을 擔當하고 있는 助敎의 應答까지도 包含하였으며 對象 學生도 위 大學

의 看護學科에 在學하는 2, 3, 4 學年 學生으로서 看護學臨床實習經驗을 가지고 있는 學生에게 局限하였다.

質問書는 1965 年 11 月 18 日에 教授用 30 枚와 學生用 267 枚를 各各 發送하였으며 그 回送狀況은 教授用이 25 枚 (83.3%), 學生用은 1965 年 12 月 3 日까지 244 枚 (91.3%)의 回送을 받았다.

## Ⅱ 大學看護教育의 現況

### A. 韓國大學 看護教育의 發達過程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의 發達過程을 크게 解放前과 解放後의 二段階로 나누어 본다. 하면 解放前은 다른 모든 文化面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外來文化의 影響을 받아 온 것이며, 外來의 影響은 주로 美國과 日本 等이고 간호교육은 이들 外國人敎師와 官吏에 依해 始作되었고 그 影響을 받아 維持되어 온 것이다 할수있다. 解放後는 看護教育도 하나의 教育的 구실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일이 美軍政을 契機로 이루어졌으며 行政府에 그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政府가 樹立되면서 看護教育도 教育의 本 軌道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努力이 傾注되어 온 것이다. 위 二段階의 背景을 歷史적으로 概觀하면 1903 年에 에드먼드嬢 (Miss Magaret Ed. munds)이 普救女館<sup>3)</sup>에서 우리나라 女性에게 처음으로 看護 教育을 實施한것이 現代 看護教育의 始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看護教育을 實施한곳은 濟衆院<sup>4)</sup>으로서 1906 年 9 月에 실스嬢 (Miss Esther Lucas Shields)이 이

註 3) 曹正煥譯: 看護史, 朝鮮看護員會, 看護敎材 出版部, 서울 1930. P.56.

註 4) 曹正煥譯 Ibid. P. 56

곳에서 看護教育을 始作하였는데 普教女館에 비해 그 規模도 컸고 施設面에 있어서도 훨씬 優秀하여 普教女館의 看護教育을 爲해 많은 便宜를 圖謀하였다고 한다. 위 두 機關에 이어 外國宣敎系 醫療機關이 各道에 增設됨에 따라 看護教育機關도 增加되어 全國에 이와 같은 宣敎系 看護教育機關이 八個所나 設置되었고 解放前까지 그 教育을 繼續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 政治의 影響으로 받아들여졌던 所謂 官立系 醫療機關에서도 各근 그 需要를 위한 看護員과 助産員의 短期養成을 實施하였는데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附屬病院內에 設立된 看護員養成所를 비롯하여 地方 各道立病院에서도 看護教育機關이 設置되었고 其外에도 運輸 및 産業 等の 特殊機關에서도 看護員教育을 始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看護教育機關이 全國에 17 個所로 1945 年 解放前까지는 看護員養成所數가 25 個所 있었으나 우리 政府가 樹立된 후 그중 11 個所는 新規로 認可를 받고 看護高等技術學校로 昇格되었다.<sup>5</sup>

“宣敎系는 宣敎師看護員을 통해 紹介된 歐美式 傾向의 患者中心看護로 入院患者 看護에 重點을 두었고 一般系에서는 日本政府의 官立機關을 통해 紹介된 日本式傾向의 看護로 醫師補助中心으로 外來患者에 重點을 두었던 것이다”<sup>6</sup>

教育制度面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特

異點은 入學資格 基準이었는데 前者에 있어서는 高等普通學校 卒業者(4 年制 中學) 인데 비해 後者に 있어서는 高等普通學校 2 學年修了程度로 되어 있었고 教育期間도 前者가 3~4 年인데 反해 後者는 二年으로 되어 있다.<sup>7</sup> 1945 年 이후에 美軍政을 襲繼로 看護教育도 하나의 特殊教育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도록 그 體制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 政府에서는 保健社會部에 看護事業을 爲한 行政機構를 두어 看護教育을 비롯한 看護의 發展과 그 水準向上을 圖謀하게 되었다. 現在 우리나라의 看護教育은 大學機關에 4 個所, 看護學校가 18, 看護高等技術學校가 5 個所에서 實施하고 있는데 現在 看護學校의 認可는 文敎部에서 그리고 實習施設을 비롯한 諸般 技術教育面에 對한 것은 保健社會部에서 管理하고 있는 現象은<sup>8</sup> 特殊技術教育이라는 觀點에서 行해진 조치이겠으나 看護教育을 爲한 行政機構의 統一化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事實은 看護教育發展에 있어 그만큼 많은 陰路가 있다고 하는 證明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現實的인 制約에도 不拘하고 最近 우리나라 看護教育機關들이 그 水準向上을 爲해 入學資格을 高等學校 卒業者로 올리고 있으며 其外에도 內的 充實을 爲한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看護教育者들의 覺醒과 또한 社會認識의 變化라고 認定되어지는 것이며 大韓看護協會<sup>9</sup>의 貢獻이 결드려

註 5) 李金田譯: 看護史, 大韓看護協會 敎育部, 서울 1954. P. 166

註 6) 朴炳淑: 韓國看護教育發展을 위한 一調査研究, 梨花女大, 서울 1962. P. 18

註 7) 朴炳淑: Ibid. P.17

註 8) 李金田譯: op. cit. P. 165

註 9) 朴炳淑: op. cit. P.22

註10) 李松姬: “大韓看護協會의 職務와 活動”大韓看護, 1:14~15

진 결과로서 그 展望을 밝게 하여 주는 것이기도하다.

다음 段階로서 現在 우리나라에 있는 大學看護敎育의 發達過程을 概觀하면 위에서 考察한바 看護敎育機關들을 母體로 發展한 것이 大部分이고 새로 設置한 곳도 있다. 其中 本 研究에서 調査對象으로 選擇한 3 個大學의 看護學科 沿革을 概觀하면,

1.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는 1950年 5월에 梨花女子大學校 醫藥大學(杏林院) 내에 看護學部를 設置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最初의 大學看護敎育課程이었으며 이는 6, 25 冬란으로 中斷되었다가 1955年 2월에 現醫科大學內의 看護學科로 文教部 認可를 받고 4월부터 25 名의 學生을 받아 敎育을 實施하였다.<sup>11)</sup>

2.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는 우리나라 看護敎育機關中에서 가장 높은水準의 敎育을 實施해 왔다고 自他가 共認

하고 있으며 解放前後를 通해 繼續의 努力을 함으로서 1954년에는 高等學校卒業者만을 入學資格으로 하여 高等教育機關으로서의 準備를 갖추게 되었다.

1957年 3月 12日 세브란스醫科大學과 延禧大學校가 聯合됨을 契機로 세브란스看護學校도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로 規格認可를 받았으며 1958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最初로 學士看護員을 輩出하게 된 것이다.<sup>12)</sup>

3.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亦是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 看護高等技術學校를 前身으로 하고 있으나 이 學校는 1961年 3月 日宇로 廢校하고 1960年 4月부터 現名稱으로 文教部 認可를 받음으로 大學課程의 看護敎育을 始作하게 되었다.<sup>13)</sup>

위 大學課程의 發達을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 大學 看護敎育課程의 發達狀況 (1965년 12월 현재)

학교명	종 별	설 립 (승 년월일)	첫 학위 수여일자	재 생 수	학 종 업	비 고			
						창립년도 및 창설자	입학자격	교육기간	졸업생수
연 세	사 (기독교기 관)	1957.3.12	1958. 3	200	262	1906.5.17 美國人 선교사	4년제 중 졸	3-4	505
서 울	국 립	1960. 4	1964. 3	151	108	1910 日人	2년 중 수료	2	(1949~ 61) 446
이 화	사 (기독교기 관)	1955. 4	1959. 3	128	196	1950. 4 韓國人	대학과정 시작		

위의 같은 過程을 통하여 發展하여온 우리나라 大學의 看護敎育은 그 自體 努力으로서 結果되어진 오늘날의 자티 確保를 滿足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加一層의 努力으로서 他界問과 步調를 維持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丙的

註11) 李永福: "看護學科設置 15週年 略史에 代함" 이력간호, 창간호(1965) P. 7

註12) 연세대학교요란, 1965. P. 266~267

註13) 서울大學校要覽, 1965. P. 9

充實을 爲한 學의 補充이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應해 나가는 첫 段階로서 看護의 本質에 대한 우리의 表現과 그리고 그 消長을 살핌으로서 우리나라의 大學看護教育이 지니는 性格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이 지녀야 할 理念의 方向을 抽出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生觀이 大學看護教育課程에 關한 問題를 다루게 될 所以라 하겠다.

### B. 大學看護教育의 性格

브라운(Brown)에 依하면 美國에 있어서 職業教育趨勢에 精通한 學者들은 高等教育機關이 專門職看護員의 教育을 擔當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의 意見を 모으고 있다고<sup>14)</sup> 말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見解로 大學에서 看護學科를 設置한 것으로 認定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大學教育機關에서 길러낸 專門職 看護員들의 社會進出은 그만큼 우리나라 國民保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그와 同時에 우리 社會 福祉向上에 있어서도 그 一役을 擔當하게 될 것이 確實視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무엇 보다도 먼저 大學이 길러내야 할 專門職 看護員의 資質에 對해 考慮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即 專門職看護員이란 臨床專門分野와 公衆保健分野에 있어서 監督, 教授, 研究, 著述 등을 해야하고 또한 專門組織에 있어서 人事와 計劃을 擔當해야 함을 必須條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上述한 여러

가지 條件을 考慮하여 그 教育의 種類와 資質을 具備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츄딘(Tschudin)은 充實한 大學看護教育을 위해서 大學이 갖추어야 할 條件으로서

1) 教育施設이 職業教育으로서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適切히 準備되어 있어야 하겠고

2) 教授도 充分한 數로 確保되어야 할 것이고

3) 豫算도 教育에 必要한 教授 및 施設을 維持할 수 있을만큼 充分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 行政組織도 効果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促進되어야 할 것이고

위 諸條件에 添加해서 大學은 一般大學과 마찬가지로 看護學도의 指導도 擔當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sup>15)</sup>

한편 教育課程에 있어 그 中核이 되는 學科課程 亦是 職業訓練準備로서 一般敎養의 넓은 背景을 強調하여 反映시켜야 하고 職業教育科目과 一般敎養科目은 같은 比重으로 그 均衡을 維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專門職科目에 있어 特別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을 具體적으로 論해 보면 即 疾病의 豫防, 健康增進, 國民의 理解, 對人關係에서의 滿足, 指導活動을 爲한 準備, 市民으로서의 參與 등이 注目되어지는 問題들이므로 이 點을 充分히 考慮 察配함으로서만 充分한 職業教育準備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別한 敎科課程以外에도 大學에서 學位를 받기 위해서는 大學의 모든 要求에도 따라야 하

註14) E.L. Brown: Nursing for the future, Russel Sagen Foundation, New York. 1948. P. 138

註15) M.O. Tschudin: "What is Sound Basic Collegiate Program in Nursing Education" Am. J.N. 52:8. 986~987 1952

註16) M.O. Tschudin: Ibid. P. 985

는 것이다.

위에서 論한바 重要點들을 念頭에 두고 大學看護教育의 性格을 좀더 뚜렷하게 들어내 示하고하던 于先 大學教育으로서의 一般目標와 專門職業教育으로서의 特殊目標의 調和가 그 것이라 하겠는데 이 點에 대해서 좀더 具體的으로 論해보고자한다.

現代 大學教育은 一般的 教養과 專門의 知識을 길러 有能한 人物을 育成하는 것이 그 本質이요 使命이다.<sup>17</sup> 卽 大學教育의 目的은 青年들로 하여금 知性의 德과 成熟된 判斷力과 힘을 準備하고 形成하여 주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뉴만( Cardinal Newman)<sup>18</sup>에 依하면 大學이란 普遍的 知識을 가르치는 곳이라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大學이 普遍的 知識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根本理由가 무엇이든간에 다만 一般的이고 認識할 수 있는 意味에서 말한 것이다. 이 普遍的이란 人間知識의 모든 部分이 남김없이 教授의 建築에 適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建築이 人間의 知識의 質的 內的 階層에 依해서 計劃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9</sup>

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教育法 第百八條에 規定된바 大學教育의 目的을 보면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

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sup>20</sup>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大學에서의 深奧한 學術의 研究와 그 應用方法의 教授란 教養教育과 專門職業教育은 아울러 重要視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觀點에서는 學生의 研究態度가 眞摯하고 主體的 乃至 實踐的이어야 할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自發的이고 協同的이며 實踐的인 學習態度로서 諸學科의 知識을 綜合的으로 活用하여 知識의 統一化 實際化를 꾀하고 國家와 社會의 指導의 人格者를 養成하는 것이 大學의 使命이라고 하였다.<sup>21</sup>

한편 一般教育에 對한 特殊教育으로서의 職業教育은 그 職業의 特定한 內容과 標準에 비추어 要求되는 諸特性을 기르는 教育인데 이를 위하여는 特殊教育뿐만 아니라 一般教育分野도 適切하게 深慮되어져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리고 特殊教育에 있어서는 嚴格한 標準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標準을 學生外에 特定한 活動과 職業領域의 內容이 定하게 되며 이것은 곧 教育目的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特殊教育의 對象은 必然的으로 몇몇 動機와 學生의 諸特性, 過去經驗 등을 嚴密히 調査하여 選定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以上으로서 大學에서 專門職, 看護員을 길러내는데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衍

註17) 金泰午: 教育學概論, 乙酉文化社發行, 서울, 1962. P.129

註18) 王學洙, 安仁熙譯·教育哲學 京鄉雜誌社, 서울, 1958. P.84~85

註19) 王學洙, 安仁熙譯: Ibid

註20) 法令 第 20條, 文教法令 P.10

註21) 金泰午著 op. cit. 1962. P.234

註22) 鄭範模, 教育課程, 中央教育出版社, 1961. P.49

註23) 鄭範模: op. cit. 1961. P.54

接히 關聯되어 있는 敎養 및 專門知識, 이 두가지 敎育이 併行되어야 한다는데 同意하게 될 것이다. 卽 그 하나는 繼續的인 成長의 바탕이 되는 것들로서 健康과 完全한 人格, 自身の 動機, 他人의 行動 또는 人間의 行動을 規定짓는 文化에 對한 洞察力과 그리고 口頭 또는 書面으로 意思疏通을 效率的으로 할수 있는 能力, 問題를 分析하여 必要한 資料를 求得하고 論理的인 理論과 結論을 形成할수 있는 能力, 그리고 當代的 社會機構가 發展하게된 背景과 그 機能, 知性的인 市民 및 一箇職業人으로서의 權利와 義務에 對한 認識과 確信 등의 一般的인 것이 고 또 다른 하나는 專門的인 學識을 위한 좀더 特殊한 技術的인 敎育이다. 이 敎育은 入院患者의 看護만이 아니고 그 것을 超越한 社會에 對한 廣範한 看護奉仕를 위한 敎育이어야 하는 것이다.

大學看護敎育課程에는 그 외에도 生活, 住宅雇用, 所得, 社會階級, 娛樂活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個人과 國家의 保健에 對한 理解, 社會奉仕活動을 爲해 看護員과 社會奉仕者間의 團體活動을 어떻게 有効하게 할수 있는가에 對한 知識 그리고 個人 家庭 社會의 保健에 對한 必要性的인 理解와 保健敎育에 對한 準備狀態 등이 包含되어야 한다.<sup>24)</sup>

위에서 論한바를 綜合하여 本來 敎養과 專門知識, 이 두가지 敎育이 併行되지 않는 限 專門職業 看護員을 養成하기 爲한 敎育으로서의 充分치 못하다는 것이 確證된 셈이다. 事實上 將來의 發展을 爲한 基盤을 構築하는 것이 大端히 重

要하며 위 두 種類의 敎育이 同時에 併行된다고 하면 그 만큼 學生들이 그들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要하게되는 時間을 節約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論한바 一般敎養을 위한 敎育과 專門分野의 敎育에 對한 統合의 試圖는 專門職業敎育分野에서 널리 反映되지 못하고 있으며 法科, 醫科 또는 社會事業科, 圖書館學科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敎養學科보다 그 專門職業敎育은 嚴格히 區別해 왔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專門敎育의 二元化가 非經濟的이며 또한 成人으로서의 發展을 促進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遲延시키는 傾向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배운바 知識을 가지고 그 專門敎育에 寄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5)</sup>

大學看護敎育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醫學敎育에 있어서와 같이 敎養課程을 先修한 후에 專門學科課程을 履修하게 하는 分離敎育型을 擇하여 왔으나 最近에 와서는 工科大学과 같이 一般敎養과 專門的인 技術敎育의 統合을 主張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結果로서 高等學校卒業者가 直接 基本敎科課程에 들어갈수 있게 되었고 또 必要한 敎養敎育은 4年間的 全敎育課程에 끌고루 써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따라 늘어나게 되는 學科課程의 對備策으로서 技術을 習得하게 되는 學科課程에서는 좀더 根本的인 問題에만 焦點을 두는 方向으로 調整되어가고 있으며 아울러 語學, 文學에서부터 精神科學에 이르기까지 有効하게 利用될 수 있도록 그 敎授方法의 改善을 試圖하는

註24) E.Z. Brown. op. cit. 1948. P.140~142

註25) E.L. Brown. op. cit 1948. P.142



傾向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大學看護教育보다 半世紀나 앞서 大學看護教育을 始作한 美國에 있어서도 一般教育和 專門職業教育의 不足을 充足시켜 주기 爲한 努力이 虛費되고 있는 現象이라고 指摘하고 이 두 部分의 調和가 좀더 發展의 段階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라고 論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以上으로서 大學看護教育에 있어서 一般敎養教育和 專門科目의 分離 또는 統合에 對한 長短點을 考察하여 보았으며 그 中 어느 敎育課程을 擇한다고 하여도 滿足할만한 敎育經驗을 주기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닌 것을 公 認識하게 될 것이다.

但只 統合된 敎科課程에서는 實習에 대한 方法이 變化하게 된다는 것과 그 方法의 革新性和 創造의 可能性은 傳統이라는 重壓에 짓눌려 있는 敎授들에게 強力한 刺戟이 될 것이며 同時에 當代의 要求와 敎育原理에도 合致하는 敎育方法을 案出해 내는데 크게 功을 奏하게 된다고 하는 長點이 있는 것이다.<sup>26)</sup>

오늘날 看護教育에 對한 社會認識의 變化와 또한 敎育課程에 對한 概念의 變化로서 우리나라 大學 看護教育에 있어서도 그 性格과 敎育內容에 對한 確證과 아울러 大學看護敎育課程의 向上을 위한 再檢討가 要請되어지고 있는 이 時點에서 分離 또는 統合의 어느 型이 더 効果的이며 우리 現實에 符合되는 것인가에 對하여는 좀더 慎重한 研究가 隨伴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看護學에 對해서 자주 問題로 提起되어 온바 看護學의 學問的 體系에

關해서도 看護學은 그 自體의 獨特한 內容을 發展시켜 專門職業敎育으로서의 比重을 크게 할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看護敎育者들도 他學問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時間을 研究와 著述을 위해 쓸수가 있는것인지 등 根本的인 問題의 挑戰에 對해서도 좀더 果敢한 對決이 必要하다고 본다.

위에서 論한바 大學看護教育에 要求되는 重要點을 要約해 보면 大學에서 專門職 看護員을 길러 내는 데는 서로 다르나 密接하게 關係되어 있는 一般敎養 및 專門技術敎育의 두가지 敎育이 併行되어야 하고 看護員의 役割이 變함에 따라 看護敎育課程의 役割도 變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大學이 길러내야 할 專門職看護員의 機能을 다시 認識하고 現行 우리나라 大學看護敎育課程이 이러한 專門職看護員을 길러내기에 適切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自問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專門職看護員이란 高度의 技術과 精神 그리고 社會科學敎育에 대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狀態를 要求하는 것이며 거기에 더하기를 複雜한 臨床狀態에서 病의 豫防과 健康의 維持가 至上의 目標인 社會醫療奉仕와 그리고 看護計劃 및 運用에 있어서도 充分히 對處해 나갈수 있는 看護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 看護員은 看護學生을 가르치고 그 學生이 患者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를 가르치는 責任을 지고 있어야 하며 또 看護의 改善에 關한 研究, 著述, 出版 등을 꾸준히 繼續해야 하며 또 그 改善案을 다른 醫療奉仕機關과 密接한 關

註26) Esther L. Brown. op. cit. 1948. P. 143~ 149

係를 맺고 運營하는 責任까지도 져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

부라운(Brown)의 教育課程에서 리버맨(Lieberman)<sup>27</sup>의 職業(Profession)의 特性에 關한 例를 보드라트 위의 所論을 變바칠하여 주는 것이다.

### Ⅲ 教育課程의 基礎와 그 構成原理

#### A. 教育課程의 基礎

##### 看護教育의 理念

한 大學의 教育理念은 그 大學의 統制 機關을 비롯하여 教授團, 學生,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社會에까지 反映되는 것이다. 大學看護教育에 있어서 基礎가 되는 看護教育理念도 그 所屬大學의 教育理念을 거울삼아 엮어지는 것임으로 教授活動과 學習活動의 選擇과 組織, 그리고 教授의 任用 學生의 厚生問題에서 教育評價에 이르기까지 그 大學의 教育理念이 反映되어 질 것이며 또 反映되어야 하는 것이다.<sup>28</sup>

그리고 教育上 諸問題에 있어서 人間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原理의 探索 이것은 教育現象의 全體的 統一的 考察即 教育實踐의 根底가되는 哲學的考察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sup>29</sup>

첫째로 看護란 어떤 것인지? 의 그 本質이 問題가 될 것이고 둘째로 專門職看護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技能을 익히는지 即 看護活動의 目標가 問題가 될 것이며 셋째로는 專門職看護員은 하나의 人

間으로서 市民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職業人으로서 어떻게 準備되어야 하나 하는 教育方法이 問題로 되는 것이다.

부라운 (Brown)은 看護는 하나의 職業이요 藝術이고 또한 健康과 社會的, 鍛鍊을 통해서 人類의 福祉改善에 貢獻하는 基本的 科學이다. 따라서 그 目的도 肉體的인 것은 勿論이고 精神的인 面과 社會的인 面에 까지 이르도록 그 對象을 保護하는데 있다<sup>30</sup>고 하였다.

看護가 社會的인 職業이라고 한다면 看護員들은 人間의 要求에 敏感해야 하며 他人의 福祉를 爲해 貢獻할 責任을 正確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學生을 指導함에 있어 教授들은 學生들로 하여금 患者를 對할 때 한 人間으로서의 權利를 認識하고 深遠한 敬意를 表하도록 企圖해야 하며 또한 한 患者에 對한 全般的인 看護(total care)의 뜻을 理解시켜야 하고 學生個個人的 要求를 實際看護立場(Nursing situation)에서 學習經驗을 應用할 수 있도록 動機와 自律活動을 誘發시켜야 할 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이 함으로써 學生들이 到達할 수 있는 職業的, 社會的, 市民的, 國際的 水準의 看護事業을 通하여 人類에 奉仕할 수 있도록 調和된 能力을 發揚시켜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經驗選定에 있어 가장 效果的인 方法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教育의 主目的이 學生들의 行動의 變

註27) A. F.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60. P. 13~14

註28) A. H. Gallagher: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Nursing. The Maemillan Co., New York, 1965 p. 10

註29) 金泰午: 教育哲學概論, 乙酉文化社, 서울, 1955, p. 15

註30) A. F.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60. p. 132.

註31) A. F. Brown: op. cit, 1960, p. 132

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어떠한變化가 要될되는가를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價値있는 判斷이 必要하게되며 그것은 또 教育課程의 根本目的에 依러 影響을 받게되는 것이다.<sup>32</sup>

1958년에 美國看護教育聯盟(The 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서는 看護學校에서 教育理念을 設定함에 規準으로 할수있는 指針으로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包含하고있다.<sup>33</sup>

1) 看護教育理念의 陳述은 慎重하게 해야 하며 教授가 教育計劃을 세우는데 利用할수 있도록 詳細해야 한다.

2) 看護하는 學生들의 모든 必要와 看護를 받는 사람의 必要가 基礎가 되어야 한다.

3) 看護教育理念은 統制機關의 基本理念과 一致되어야 한다.

4) 看護教育理念의 陳述은 아래와 같은 事項을 包含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教授들의 信念과도 一致하여야 한다.

a. 看護란 무엇인가.

b. 看護가 무엇을 할수있으며 무엇을 할수 있어야 하는가.

c. 教育이란 무엇인가.

d. 學生들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e. 最適의 教育的 雰圍氣를 造成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f. 學習經驗을 指導하는 責任을 누가 질 것인가.

5) 基本理念은 學校의 目的을 發展시

키는네 指針이 되어야 한다.

6) 學生에게 바라는 行動의 變化는 다음과 같은말로 表現할 수 있다.

a. 한 個人으로서의 學生

b. 專門的職業能力, 經帶, 및 責任.

c. 市民으로서의 義務.

7) 學生과 看護를 받는者의 要求는 可變的이기 때문에 教授들은 看護教育理念 및 目的의 組織的인 再檢討의 必要를 認定하고 繼續的인 義務로서 受容해야 한다.

8) 教育의 綜合的인 計劃은 陳述된 理念과 目的에 비추어 評價되어야 한다.

#### 社會의 要求와 看護教育

時代의 要求와 社會發達에 따라 看護에 對한 社會要求도 變하게되므로 看護教育은 恒常 그 時代와 社會要求에 應할수 있도록 研究하고 改造되어야 할것이다.

데이쿠르츠(Havighurst)는 말하기를 教育은 어떻게 보면 學校를 通해서 社會가 個人에게 크게 그의 發達課業을 成就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生뿔한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34</sup>

따라서 學校를 둘러싸고 있는 現代社會는 또 하나의 教育目的의 資源이되는 것이다. 現代社會의 特徵의 하나는 그 變遷이 加速的이라는 것이다. 看護教育도 이와 같이 變遷하는 社會의 方向을 認識하여야 하며 現代에 살고 있는 現代感覺에 모—든 生活感情이 젖어있는 學生에

註32) L. E. Heidgerken: Teaching in Schools of Nursing, J. 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53, p. 197~198

註33) National League for Nursing, Department of Diploma and Associate Degree Program: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 in Nursing, Leading to a Diploma, New York, 1958, p. 7

註34) R. T.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Longmans, New York, 1951, p. 5

게 舊式의 教育을 그대로 實施할수는 없  
는 것이다. 教育은 社會生活의 重要한  
機能이며 社會生活過程이라 할수있고 教  
育의 眞正한 意味는 變遷하는 社會에 對  
處할 수있는 能力과 知識을 길러서 社會  
에 奉仕하게 하는 것이 目標이고 나아가  
서는 社會에 올바른 方向을 提示하는데  
있다고 하겠다.<sup>35</sup>

특히 看護教育은 社會科學이라고 말하  
고 있는만큼 社會 넓은 領域에 關聯되  
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事實이다. 看護學  
이 保衛衛生 等の 活動을 通하여 社會改  
造를 指向하느니 만큼, 學習活動은 社會  
의 問題에 重點을 두게되는 것이다.

社會는 곧 學生들의 學習環境이라고  
볼수있다. 地域社會 또는 病院이라고 하  
는 小特殊社會에서 일어나는 모든 實際  
的인 問題에 直面하게되는데 이러한 問  
題들을 解決해나가는 동안에 社會를 爲  
한 바람직한 人間이 形成되도록 해야 하  
는 것이다.

學生들중 社會構成員으로 볼 때 그들은  
環境의 價値體制, 習慣, 傳統等 여러가  
지 要因에 依해서 그들의 行動과 成長發  
達에 影響을 받게 된다고 하는 事實과 反  
對로 社會變遷은 이러한 個人的 影響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  
기 때문이다.

같은 理論으로서 學生들이 學習對象으  
로하는 患者들을 疾病을 지닌 個人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表現하는 社會的  
環境 卽 그들의 處地와 經濟와 모든 文化  
의 背景의 側面에서 理解하려고하는 努力

이 더 要求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人間에 對한 理解  
는 勿論이고, 生活, 活動, 職業 等の 社  
會問題에 對한 充分한 知識이 看護員에  
게 要請됨은 必然의 事實이라 하겠다.

여기에 強調해야 할 點은 看護教育計  
劃에 있어서도 어떠한 社會에 對한 知識  
이 꼭 必要한 것인지 그리고 여러 知識  
에 共通되는 原理는 무엇인지를 밝혀서  
社會 여러要因中에서 看護와 關聯되는  
重要한 要因만을 選擇하여 거기에 應當  
하는 教育計劃을 잘 必要가 있는 것이다.<sup>36</sup>

#### 教育科目과 學科科目

傳統的 教育의 觀念은 學科科目의 習  
得이었으나 教育에 對한 새로운 概念과  
그에 依한 實行이 強調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學科科目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教育目的과 方向設定에 한 資源이 되는  
것이다. 어떤 知識이 가장 보람있는 것  
이냐? 하는 스펜서(Herbert Spencer)<sup>37</sup>  
의 이 짧은 質問은 大學看護教育에 있어  
서도 緊要한 質問이라 보여진다. 現우려  
나라 看護教育에 있어 無批判의으로 받  
아들여진 結果로 나타나게된 많은 缺陷  
은 反省되어야 할 것이며 大學看護教育의  
基本機能을 發揮할수있는 學科科目이란  
어떤 것인가를 考慮하여 整備 乃至는 再  
調整함으로 改善해 나갈 必要가 있는것  
이다.

모든 教育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看護  
教育에 있어서는 더욱 아는 것보다 行하는  
것이 더 切實한 것이고 보면 教育에 있  
어서도 行하는 것에 關해서를 가르쳐야

註35) 崔台鎬: 敎職研修資料集, 培英社, 서울, 1962. p. 87

註36) 鄭範模: 敎育課程, 培英社, 서울, 1956. p. 172

註37) 정범모: Ibid 1956. p. 172

하는 것이다. 또한 教育內容을 어떤 體系에 따라 組織된 知識의 領域에 屬하게 할 것이냐가 問題인데 專門的學問에 對한 知識의 內容에 能通하게 해야함은 勿論이고 專門人으로서의 活動에서 뿐만 아니라 一般社會人으로서도 어떤 貢獻으로도 爲할 수 있는가를 더 알고, 더 認識하는 사람을 眞價내야 한다는 點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기에, 學科科目 그 自體보다도 學校가 貢獻할 수 있는 一般教育的 機能이 教育目的의 資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段階는 學科科目의 區分인데 學問의 體系自體로 보아 區分을 決定짓기 보다는 社會에서의 實際活動 또는 教育實踐上의 意義를 主로 하여 區分하고 統合하는 것이 더 適當하다고 보고 있으며 Brown은 大學看護教育에 있어서 學科科目을 다음의 區域構造를 適用하여 크게 넷으로 나누고 있다.<sup>38)</sup>

- ① 人文科學
- ② 社會科學
- ③ 自然科學
- ④ 臨床學科目으로 나누고 있으며 臨床學科目は 다시
  - ㉠ 內科看護學
  - ㉡ 外科看護學
  - ㉢ 小兒科看護學
  - ㉣ 産科看護學
  - ㉤ 精神科看護學의 다섯으로 區分하였다

大學看護教育課程에서는 위 네 分野外에도 添加해서 藝術的機能을 나타낼 수 있는 選擇科目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學生들의 知識의 範圍를 넓혀주게되며 經驗의 明瞭과, 人性 統合 그리고 興味와 價値를 覺수있게 하는데 必要하다는 것이다.

### B. 教育課程의 構成

타이러리안(Tylerian)의 教育課程構成은 다음의 네 主要部로 되어 있다.

38)

① 教育目的의 設定의 系統的 叙述과 學生들이 그 目的을 達成하게 하기위한 ② 學習經驗의 選擇 그리고 그 學習經驗의 效果의인 ③ 組織化와 目的을 獲得하는데 대한 ④ 評價方法의 案出로 되어 있다.<sup>39)</sup>

따라서 이 네 段階에서 展開되는 문제들을 個別的으로 考察함으로써 本 研究가 意圖하는바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課程構成에 必要한 原理를 把握하고자 한다.

教育目的을 發見함에 있어 教育이 指向하는바, 學生의 行動이 要求되는 方向으로 變化되게 한다고 하는 이 行動이란 말은 思考力, 感情, 行動 等の 廣義로 使用되는 말이다. 學生들이 大學에 들어 오기 전에는 가져보지 못하던 專門的인 技術, 思考, 習慣, 理念 등을 習得함으로써 그들의 行動이 變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의 定義로 부터 教育目標은 學校가 學生들에게 發見시키려고 하는 行動의 한 形態를 構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明白하게 되며 知識, 技術, 思考方式 등은 이러한 目標의 한 例인 것이다.

타이러(tyler)는 教育目的에 關係를 及하기를

“學校의 公式化된 教育目的들은 具

註38) A. F. Brown: op. cit, 1960. p. 42~46.

註39) A. F. Broan, op. cit. 1960, p. 94

현적인 말보다 漠然한 말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더러는 目標가 없이 計劃表는 數年間 걸쳐 내려오는 教師의 方針과 傳統의인 內容에 基礎를 두고 있거나 或은 個人的인 選擇이던가 現流行에 따라 動搖되고 있으며 그 計劃表를 向上시키고 評價할수 있는 明確한 指針이 없는 實情이라"고 하였다.<sup>40</sup>

教育目的이란 그 單語가 意味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教育의 方向을 提示하는 役割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教育目的의 設定은 教育課程 構成에 있어 가장 重要視되는 것이며 또 어느 活動보다도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學習經驗이나 學習內容, 學習活動은 다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고 이러한 活動들은 目的으로부터 抽出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教育目的이 우선 번째이고 또 그 目的은 妥當한 것이라야 하겠으므로 教育目的의 設定에 必要한 몇가지 留意點<sup>41</sup>에 對해서 論하면 첫째 教育目的은 漠然한 單語의 羅列이나 形式的인 標語가 되어서는 안되며 教育課程構成에 具體的인 示唆을 할수 있는 明瞭한 行動的 用語로 叙述되어야 한다. 둘째 教育目的은 抱括的이어야 한다. 現代教育이 全人으로서의 發達을 強調하고 있으므로 學校의 目的은 身體的, 知的, 社會的, 情緒的 各面의 調和된 發達을 促求하는 意味에서 어느 한 面도 疎忽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知識, 技術 或은 態度가 學生들로 하여금 더 큰 職業的인 貢獻을 이

룩하는데 돕지 못하거나 또는 더 幸福하고 發展에 찬 生活을 營爲하는데 돕지 못한다고 하면 價値있는 時間을 浪費하는 結果밖에는 안될 것이다.

셋째 叙述된 教育目的속에는 統一性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教育目的의 資源인 教育理念의 統一性이 要求된다. 어떤 項目에서는 批判的 思考能力이 強調되고 또 다른 項目에서는 權威에 對한 無條件 服從이 強調된다고 하면 이로서 相反된 理念의 葛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目標가 記載되어도 困難하다. 이루어질수 있는 目的의 數란 限定된 것이기 때문에 大端히 重要하고 明確한 少數의 目的이 公式化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教育目的은 教育에 參與하는 行政家, 一線教師, 學生들이 協同的으로 設定해야 하며 이를 完全히 理解하고 받아들여 行動化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教育目的이 設定되었다고 할지라도 教師나 行政家들이 關心이 없다면 實踐의 可能性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行政家, 教師, 學生이 參加하여 民主的方法과 節次를 通하여 設定된 教育目的은 各自가 自己것으로 받아들일 用意와 實踐에 對한 熱意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教職員들의 協同的인 集團思考를 通해 抽出되고 叙述된 教育目的이라 할지라도 決코 完全한 것이 아니므로 恒常 그 妥當性이 批判되고 必要에 따라 언제나 變更될수 있어야 한다.

註40) R. W. Tyler, "Evolving a Functional Curriculum," American Journal of Nursing 51:736~737

註41) 鄭曉樸: op. cit. 1956, p. 245~276

教育課程의 發展을 企圖하는 立場에서 教育目的이 最終的으로 叙述될 때는 없는 것이다. 學敎는 보다 나은 教育實踐을 通하여 보다 나은 學生을 希求하는 까닭에 恒常 實踐的 改造가 強調되는 것이 더 特히 變化하는 社會의 要求, 學生의 要求를 생각할 때 教育目的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首肯하게 될 것이다.

教育課程을 發展시키고 目標에 이바지할 第二段階는 學習經驗의 選定이다. 어느 大學 課程에서나 教育課程構成上 當面하게 되는 主된 問題는 學習經驗의 選擇과 學生의 能力發展에 있어 가장 價値 있는 材料의 相互關係를 爲한 組織과 그리고 成年期에 놓여있는 學生들의 活動을 爲해 準備하는 것이다.

모든 敎育은 莫大하게 貯藏된 人間의 知識의 短片的 見本抽出이고 바람직 할 만큼 세워져 주는 敎育課程이란 없는 것이므로 이 問題에 앞서서 일어나는 問題는 學生에게 要求되는 行爲의 變化를 어떻게 獲得하게 할 것인가가 問題인 것이다.

이에 對한 極히 單純한 對答으로서 學生은 要求되는 行爲를 實行함으로써 새로운 行爲의 形態를 얻게 될 것이나 이 要求되는 行爲를 學生들에게 實行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學生이 理念을 想起한다면 단지 自己自身의 表現으로 理念을 說明한다면 지 또는 그 理念속에서 說明을 찾아냄으로서 理解力을 發展시키게 된다. 이러한 思考方式에 依한 技術은 問題解決을 여러번 實行함으로써 얻어지게 되고 興味는 어떤

種類의 經驗에서 滿足을 얻으므로 얻어지게 된다. 모든 種類의 行爲를 爲해서 學生은 그것들을 實行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行爲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分析으로부터 明確하게 나타나는 事實은 學生들이 理解力을 發展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學生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左右된다고 하는 事實에 因이다.

다음으로 目的에 의해 內包된 行爲를 施行시킬 期會를 주기 위한 活動範圍에 關해 略述해 보면 學生들이 理解力을 얻고 批判的인 生覽을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解決할 수 있는 問題들을 提示하는 것이다. 그리고 技巧과 技術과 習慣을 實行하게 要求되는 問題도 提供해야 한다. 이와 같은 問題들은

“學習經驗의 內容은 學生들의 經驗의 一部로서 學生들이 이에 反應할 수 있는 環境條件은 적지만 學習經驗自體는 아니므로 眞正한 意味에서의 學習經驗이란 學習者와 學習者의 環境과의 相互作用에서 結果되지며 그것을 通해 얻어진 學習效果를 意味하는 것이다.”<sup>42)</sup>

이와 같이 學習經驗을 學生과 環境의 相互作用으로 規定하고 學習經驗의 選定計劃을 學習內容이나 敎師活動 또는 學習活動의 計劃이 아닌 學生自身의 個人的 主觀的 問題로 볼 때 學習經驗의 計劃이란 結局 學生이 環境에, 어떤 要因에, 어떻게 反應하게 하느냐를 計劃하는 問題가 된다.

헤이스(Hehyes)는 保護敎育에 있어 다

註12) R.W. Tyler; op. cit. 736~738

註43) 鄭範模 : op. cit. 1956, p. 234.

을 여섯 分野를 學習經驗으로 擇하고 있다.

- 1) 個人的 發展
- 2) 基礎知識
- 3) 人間關係
- 4) 人間的 問題解決
- 5) 批判的 思考力

6) 敎育과 經營이고 基礎知識은 社會科學, 自然科學 交際, 慈善行爲, 衛生 등의 다섯 學問分野를 含有한다고 하였다.<sup>44)</sup> 위 各分野를 通한 學生의 活動傾向과 環境의 諸要因과의 作用에서 學生이 一定한 反應을 일으키게 되며 이 反應은 學生의 內部的 活動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習經驗選定에 앞서 學生의 橫衡的 活動傾向(學生의 必要, 興味, 問題 등)을 調査分析하고 한편으로는 相互作用을 이루는 環境의 要因(學習內容, 學術材料, 敎師活動)을 (統制함으로써만 바람직한 學習經驗을) 實現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敎育課程을 構成함에 있어 세번째 段階는 選擇된 學習經驗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하기 위한 學習經驗의 組織이다. 學習經驗의 選定과 組織이란 實際에 있어서는 相伴的으로 考察하고 計劃되어져야 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順序의으로 選定 다음에 組織을 論하기로 한다.

아무리 必要하다고 認定된 學習經驗이라 할지라도 無組織하게 運營될 수는 없으며 單位, 部分, 科目, 年度의 構造들이 全體의인 計劃속에 차여져 있어야 하고 여기 따라서 敎育課程의 類型과 時間配當, 日課表 등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經驗의 連續的組織과 統

습으로 얻어지는 學習經驗에 累加되는 效果를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組織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卽 無計劃하게 分配된 50時間의 臨床實習보다는 學生들로 하여금 더 廣範하고 深奧한 適用을 引用하게끔 割當된 50時間의 實習이 훨씬 더 큰 效果를 招來할 것은 當연한 理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看護敎育이 目的하는 바가 健康問題에 關한 社會福祉에의 最大限에 貢獻이고 이를 遂行하기 위한 指導性的 發達이라고 한다면 그 學習經驗의 組織에 있어서도 力動性있는 經驗을 前提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組織이 必要한 理由는 어떤 行動의 變化는 하루 이틀 동안이나 한두번의 經驗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長期組織으로서 累加的 效果와 相互補強의 效果를 거둘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連續的인 經驗의 組織은 便宜上: 區劃이 必要하게 되며 다시 單位를 定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節次는 敎授의 便宜라든가 쓰는 學問의 體系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學生들의 學習을 도우기 위해서 組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이 學習經驗의 組織에 있어서는 縱的인 組織으로서 繼續性和 系列性이 그리고 橫的인 關係로는 統合이 要求되고 있다.

繼續性이란 縱的인 配列에서 主要한 經驗要因에 繼續反復됨을 말하는 것으로 概念, 價値, 能力의 繼續的인 反復에서 蓄積되어질 效果를 바라는 것이고 이 때문에 敎育課程 組織에서는 繼續的인 學習의 機會가 保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註44) M.F. Heyes: "We share curriculum planning," Nursing Outlook, 6:533



系列性도 같은 縱的인 組織의 한 特性이며 縱的인 출기와 同時에 出되 깊고 넓은 意味를 出수 있는 經驗要因이 된다. 即 理解와 思考力態度나 價値觀들이 점점 透徹해가는 것등의 깊고 넓으며 또한 새로운 意義와 洞察과 興趣를 出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教育課程의 橫的 關係로서 統合性(Integration)이 要求된다. 이것은 學習經驗들을 橫的인 關係에서 서로 補強할수 있게 하며 또 서로 調和되고 統合된 意義를 지닐수 있도록 하는 組織의 統一性을 말하는 것이다. 한 領域에서의 經驗이 그리고 內容, 能力 등이 다른 여러 領域에서도 關聯되고 適用되며 強調될수 있는 것이다.

看護教育過程 構成에 있어 統合의 性格과 그 範圍에 대한 例로서 브라운(Brown)이 말한바를 보면

“內科와 外科看護學에 關聯되는 臨床實習은 비록 一定한 期間동안만 하고 있으나 그의 모든 臨床科目 實習에 있어서도 縱織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精神衛生, 營養學, 公衆保健學, 豫防醫學 等도 特定한 過程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恒常 서로 關聯性이 있어야 하고 社會學科와 社會活動方法도 마찬가지로 特定한 過程에서만 배우도록 하되 看護學과 豫防醫學의 理論과 實際는 그 統合에 돕을 原則으로 해야한다.”<sup>45)</sup>

이와 같은 統合은 教育方法에 依해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看護學을 가르치는 教授들은 講義室에서 뿐만 아니라 病室에서도 가르칠수 있는 準備가 되

어 있어야 하며 看護學의 豫防的인 面과 治療的인 面, 또 患者看護의 精神的인 面과 生理的인 面 또는 食事와 營養의 모든 面을 가르칠수 있도록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看護學 教授는 教育計劃表에 있어 理論과 實習의 前後關係를 계속 維持하는지를 確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理論과 實習 그리고 行動과 行動間의 結果에 密接한 相互關係를 마련한다면 學生들의 思考, 感覺, 行動間의 가장 重要한 統合을 이룩하기는 容易한 일이며 이렇게 되면 할수없는 일을 생각하는 學生은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느끼기는 하면서도 舍理的인 理解로서 感情에 이끌리지 않는 學生도 없을 것이다.

타일러(Tyler)의 定義에 依하면

“實習指導者(Practitioner)는 科學的 原則에 立脚한 그의 實習을 基礎로 하고 藝術的方法으로서 實習을 應用시킬수 있는 專門家”라고 했다.<sup>46)</sup>

이와 같이 看護教育 指導者는 學生들로 하여금 여러科學에서 派生된 原則과 概念을 利用하도록 社會科學과 生物科學을 強化시킬 必要가 있으며 또한 化學, 生理學 그리고 어떤 部分에 있어서의 微生物學은 서로 엮히면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지에 있어 基礎科學을 배우고난 후에 臨床看護를 할 때는 배운 科學을 統合하게 되며 이것은 學生들로 하여금 상호 問題를 알아내고 分析하고 여러 科學에

註45) E.L. Brown, op. cit. 1948. p. 145

註46) L.C. Learell; and Thomson: Science in the Nursing Curriculum, N. Outlook 1957 p. 606

서 派生된 原則에 立脚해서 그들의 行動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學習經驗의 組織原則으로서 論理의原則과 發達的, 心理的의原則을 들 수가 있는데 흔히 取해지고 있는 組織의 原則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一位 →二位 →三位”, 또는 “容易에서 困難으로” “全體에서 要約으로” “單純에서 複雜으로” 등이다. 實際에 있어서 이 原則들은 서로 相關되므로 適當한 곳에 適切하게 使用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組織의 原則이던지 간에 學習經驗들을 繼續性, 系列性, 統合性있게 組織해주는 것이라야 한다.”<sup>47</sup>

이것으로서 學習經驗의 主要 要因들과 이것의 繼續性, 系列性, 統合性이 維持될 수 있게 組織할 수 있는 原則들을 考察해 보았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組織된 學習經驗들을 담아둘 그릇의 구실을 하게 되는 教育課程, 組織의 構造다.<sup>48</sup> 이것은 教育課程 構成에서 받아드린바 組織原則에 영향을 받게 되며 다음의 여러 構造型을 看護教育 見地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教科構造(Subject-Matter curriculum)이란 영양학, 약리학,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등을 말한다.

廣域構造(Broad-Field curriculum)이란 母子保健, 內科看護學等, 몇몇 非連續的인 科目(Discrete courses)들을 말한다.

中核構造(Core curriculum)의 한 例로는 기본간호학이 모든 다른 分野의 科目 組織의 中心 또는 主要 中核으로서 關聯

되어지는 것이다. 이 全體構造의 決定다음에는 中間構造의 決定이 必要하게 된다. 이것은 系列的인 科目(Sequenciat arrangement)들의 配列이다. 例를 들면 內外科看護學 I, II, III, 이던가 母子保健看護 I, II 等이 그 것이다.

그 다음은 最底單位의 決定인데 이것은 課目(lesson), 主題(topic), 問題構案(Project), 單元(unit) 등의 構造이다. 이렇게 해서 全體, 中間 最底의 組織이 決定되면 위에서 論한바 學習經驗의 主要 要因들과 그 組織의 原則에 따라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있게 適用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時間配當 問題인데 그것은 教育課程의 各部分에 얼마나한 時間을 配當해야 하느냐의 實際的인 重要한 문제다. 例를 들면 一般教育은 몇해나 해야 하며 年中 어느때 라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몇 학기로 나눌 것인지, 또는 週常 몇 時間 또는 하루등안의 校時는 어떻게 分割할 것인지 등이 문제인 것이다. 이 問題에 關한 充分한 研究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傾向으로는 全體教育年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年間學校時間도 增加되고 있으며 絕對時間量에 있어서는 傳統的인 科目時間도 증가되고 있으나 課外活動, 새로운 科目의 時間은 더 많이 增加되고 있다. 짧은 時間의 區劃은 사라지고 큰 單位로서 多樣性, 伸縮性, 隔通性 있게 하는 傾向이며 또한 教授의 支配的 活動보다 學生生活時間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sup>49</sup>

註47) E.H. Treasure, Implementation of the Nursing Curriculum in the Clinical fields. p. 291

註48) Printed Matter (C. Devciopment)

註49) 정법모, op. cit. 1956, p. 356

### 學習指導

教育課程의 基礎와 構成에 있어서 이미 學習指導에 關하여 論한바 있으나 그것은 事前計劃에 屬하는 일이며 이 事前計劃들을 가지고 實地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實際運營의 問題가 學習指導인 것이다.

學生들 사이에 教授行爲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르침의 目的인 것이다.

가르친다고 하는 이 有目的인 行爲는 對象으로 하는 學生들의 能力과 關心 以前의 背景 그리고 性格構造 等に 있어 廣範하고 多様하기 때문에 複雜한 것이고 또한 生活의 여러 면과 그들이 배운 바를 適用하게 되고 黨面하게 되는 여러 方面의 狀況들에 대한 適用에 있어 또한 複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르침의 複雜性은 學習을 指導하는 方法에 關해서 單純한 規則이나 公式 等の 使用을 禁하게 된다.<sup>50)</sup>

學生들의 個別的인 指導와 集團指導狀況들은 特別한 條件下에서 바람직한 結果를 가져올수있는 技巧을 發展 시키도록 하는 方法과 相當한 程度까지의 經驗과 能熱이 要求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 解決을 위해 教師들의 目的에 關한 明白한 見解를 追求하도록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學習指導에 있어 教授들은 學生들의 行爲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變化에 對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있으며 흔히 目的들을 設定하지도 않고 있고 目的들에 關해서 明白한 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實地에 있어 그리 重要하지 않은 教材說明을 記憶하는 일이라던가 좀 다른 제목을 가르치는 것 등의 약점이 더 優秀하게 나타나고 있다.<sup>51)</sup>고 하였다.

새로운 學習指導의 傾向은 在來의 體制인 講義中心으로부터 學生의 活動中心으로 他律的인 學習에서 自律的인 學習으로 注入式에서 啓發式으로 그리고 學問의 論理的體系重視로 부터 學生의 心理的動機나 興味를 重視하는현으로 그리고 個人的 孤立的인 學習에서 社會的 共同的 學習으로 分科學習指導에서 綜合 統一的 學習指導으로 變遷하여 가고있다. 이 것으로서 새로운 學習指導의 特徵을 대략 살펴보았으며 이를 基調로 한 具體的 強調點은 教授와 學生의 共同計劃으로 動機 興味問題 解決에 있어 學習의 目的 學習經驗의 意味를 透徹하게 할 수 있는 利點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強調되어져야 할 것은 集團課程과 個人的의 문제인데 이 點들은 실지 學習活動에 強力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教授들의 意識的인 考慮와 努力이 要求되는 點이라 하겠다.

### 教育課程의 評價

教育課程의 構成은 위에서 論한바 있는 教育目的의 設定으로 教育活動의 方向이 決定되고 目的達成을 위한 學習經驗의 選定과 組織의 段階를 거쳐 學習指導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教育的 活動이 얼마나 有效했으며 目的의 達成은 어느 程度인가를 알아보는 評價段階도 또한 거쳐야 하는 것이다.

註50) Sand, Curriculum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 G. P. Putrams's Soa,s. New York. 1955. p. 3

註51) Ibid

教育課程의 評價는 教育課程의 向上過程에 있어서는 絶對的인 要素가 된다. 그러므로 教育課程 全體의 評價를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評價할 수 있는 組織을 두고 이 組織을 통하여 教育目的 自體의 妥當性으로부터 그 모든 構造가 目的들을 効果的으로 達成할수 있게되어 있는지 등의 全面的인 反省과 檢討가 要望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學習活動을 통하여 일어나는 學生行動의 變化量을 測定하는 일인데 이와같은 學生評價도 學生을 評價하는 것이라기 보다 學生을 통해 이루어진 學習指導活動을 評價하는 한 방법에 不遇한 것이다.<sup>52)</sup>

評價方法으로는 어떠한 準據(criteria)를 定하고 그것에 기대서 만든 檢目表(check list)를 사용하거나 觀察을 통해 얻어진 資料거나 學習成績評價에서 얻어진 資料를 研究會에서 評價하는 등의 方法으로서만 바람직한 教育課程을 指向할수가 있는 것이다.

看護教育에 있어서는 좀더 獨創的인 評價方法이 要求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考慮되어야 할 點은 大學看護教育 全般에 關한 向上된 計劃을 위해서 全敎職員의 協同的인 努力이 評價活動에 傾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教育課程 構成의 各段階를 檢討함에 있어 어떤 方法을 使用하던지 그 適否性과 妥當性, 객관성, 良好度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sup>53)</sup>

看護教育에 있어서 臨床實習經驗은 必須이고 이 學習經驗의 評價는 언제나 여

러가지 畧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畧點을 弛기 위한 方便으로 使用될 教育課程 全體의 評價와 學習經驗과 臨床實習經驗의 評價를 爲한 基準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基準은 可變性이 있어 現在 基準이었던 것이 削除될 수도 또한 修正될 수도 있는 反面에 새로운 基準들이 社會必要性에 副應하기 爲해 添加될 수 있는 것이다.<sup>54)</sup>

#### Ⅳ. 韓國大學看護教育課程의 實際

위에서는 大學看護教育課程의 構成을 爲해 여러가지 文獻에 나타난바 理論的 原理를 基礎로 한 諸構成要素를 살펴본 었다.

여기서는 本 論文이 目的하는바 우리나라의 大學看護教育의 發展策을 模索하기 爲해 現行 大學看護教育課程의 實際를 調査分析하여 앞에서 論한바 諸原理에 기대봄으로서 그 發展과 改善方向의 示唆을 얻고자 한다.

大學看護教育의 目的이 專門職看護員을 길러냄과 同時에 知性을 갖춘 個人, 市民指導者로서의 資質을 길러주어 社會에 奉仕케 함이고 보면 그 目的達成을 爲하여는 最大限의 多樣한 學習經驗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本 論文이 對象으로 한 A. B. C.大學의 要覽, 案內, 또는 文教部에 提出한 1965年度 教育實施案 等に 나타난 課程案에 依하면 四個年 過程을 통해 履修해야할 全科目을 專攻必須, 敎養必須, 敎養選擇,

註52) 現代教育叢書:教育原理,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서울 1962 p. 224

註53) Ibid, p. 266~270

註54) O. Sand, op. cit, p. 6

教養科目들로 나누고 있으며 그중 教養選擇科目은 한두 科目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도 반드시 選擇해야 할 科目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事實上의 選擇科目은 없는 實情이다.

이에 關聯된 學習經驗의 選擇 및 組織에 關한 問題로서 「看護學을 履修하는 동안에 選擇科目이 있다던?」에 關한 學生 質問書에 나타난 反應을 보면, 人文學(文學, 藝術等)이 89.8%로 가장 많으며 다음에 社會科學(政治, 經濟等)이

6.5% 其他 系統이 3.3%, 必要없다가 0.4%로서 人文科學에 對한 要求가 거의 支配的이다.

各大學에서 現在 實施하고 있는 看護學 全科目內容을 부라운(Brown)의 引用한 例의 學問分野로 區分해 보면 表 1~1과 같이 「看護學 臨床科目」 및 「基礎看護學科目」은 세 大學이 거의 다같이 3分の 2以上을 차지하는 큰 比重을 보여주며 「人文科學」 및 「社會科學」은 3分の 1보다 약한 比重을 보여 주고있다.

表 1~1 學校別教科內容의 學問分野別區分

區分	學校別		Brown 1)		A		B		C	
	學點數	%	學點數	%	學點數	%	學點數	%	學點數	%
人文學	26	16.7	38	20	18	10	30	18		
社會科學	43	27	32	16	17	9.7	19	11		
看護學 基礎科目	47	30	55	28	69	34	57	34		
看護學 臨床科目	42	27	71	36	80	46.3	63	37		
計	158	100	196	100	175	100	169	100		

參考, A. F.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Saunders Co., Philadelphia, 44-46. 1960 (Medical Nursing, Saunders Co., Philadelphia, 3rd Ed, 14, 1958.)

延世要覽(1965)

서울大學校要覽(1965)

梨花大學案內(1964)

文教部科學技術教育課, 梨花女子大學 校醫科大學 看護學科 教科程計劃案 (1965年實施)

이것을 「看護學科目中에서 가장 重要하다고 느껴지는 學科目的 順位는?」에 對한 學生 應答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教養科目」을 第一位로 하는 學生이 48.4%로 가장 많고 「看護學基礎科目」이 16.4%로 次位로, 「精神科看護學」 5.7%, 「小兒科看護學」 5.7%, 「産婦人科看護學」 5.4%

「內科看護學」 5.3%, 「外科看護學」 3.2%의 順으로 看護學臨床科目에서는 거의 비슷한 反應을 보여주고있다.

教養科目對 專攻科目의 理想的 比率에 關한 教授 質問書 反應에서는 專攻科目對 教養科目의 比率이 各各 4對 1이 좋겠다는 反應이 73%로서 가장 優劣하고 3對 1 (18%)과 5對 1 (0.9%)의 比率을 보여 준다.

「專攻科目對 教養科目의 理想的 比率에서 4對 1에 많은 贊成을 보여주고 있음은 看護大學의 發達の 背景과 아울러 教育課程에서의 傳統의 意味를 固執하여

주는 것이라 볼수있으며 3對 1이 18%로 나타나고 있음은 大學教育으로서의 姿勢를 위한 새로운 意欲의 表示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3個大學의 平均을 가지고 다시 부라운(Brown)의 引用한바와 對照해 보면 表1에서와 같이 人文學科目과 看護學基礎科目에서는 거의 비슷한 比率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看護學臨床科目에서는 13%의 超過를 社會學科目에서는 오히려의 15%의 不足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課程에도 基本的인 統一性이 要求된다고 보십니까?」에 教授質問應答에서 「그렇다」가 48% 「研究할 問題다」가 52%로 나타나고 있어 基本的인 統一性이 維持되어 있어야 함을 認定을 하나 좀더 研究해야 할 問題로 나타나고 있다.

各大學에서 實施하고 있는 看護學臨床科目의 學點分佈를 보면 세 看護大學의 「現看護學臨床科目學點分佈」는 表2에서와 같이 各大學이 거의 같은 比率으로 基礎看護學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大學 A는 保健看護學을 제외한 全臨床科目의 大學 B, C. 보다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C는 A, B. 보다 保健分野를 除外한 全科目에서 낮은 학점배당을 보여주고 있다. 看護學臨床科目의 總學點配當狀況과 그 實習時間의 比率은 表3과 같이 A, B, C. 의 臨床看護學 總點配當에 있어 큰 差를 볼수없으나 實地臨床實習을 하는 時間數는 A와 B에서 倍以上의 懸隔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表3에서 나타나는 臨床科目의 實習學點 및 그 實習實況의 差를 「貴大學의 特殊性」이란 對教授 質問應答에서 보면 A

는 臨床實習을 重點으로 實施하여 卒業後 社會進出에서 조금도 躊躇함이 없이 實力을 발휘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C는 敎養教育에 重點을 두는 한편 保健看護教育을 重視한다」라는 應答과의 一致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3)

臨床看護學 各科日別 實習狀況에 있어서는 表4와 같이 基礎看護學에서 A만이 실시 臨床實習을 行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保健看護學에서는 A, B, C. 가 거의 같은 比率을 보여주며 그의 分野에서는 A가 至觀的으로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C가 次位, B가 全體的으로 낮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4)

教育課程의 基礎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 學生質問書 反應을 보면,

「看護學을 擇하게된 動機는?」表5-1과 같이 「장래, 家庭 生活에 必要해서」가 50.9%로 가장 많으며 「人類에의 奉仕生活을 하고 싶어서」가 15.6% 「父母, 先生任, 선배님의 권유로」가 12.8%로 나타났고 「職業의 安定을 얻기 爲하여」는 11.9%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내게 當장 問題가 되는 것은?」表5-2와 같이 「實習과 關聯된 對人關係에서」42.7%, 「效果的인 學習方法을 모른다」가 17%로 나타나고 있다.

「現在 량부가 不遊하다고 생각한다면」그 理由로서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다」가 62.3%로 제일 많으며 「時間이 모자란다」가 16.4%로 次位로 나타나고 있다.

「學生들에 對한 先生任들의 理解?」에서 「理解하여 주시는 분도 계시다」에 61.5%를 보이는데 比해 「理解하여 주신분이 大部分이다」에서는 7.8%밖에 안되며 「거의 理解하여주시지 못 하는 것 같다」

(表 5) (학생질문서)

## 教 育 課 程

문 항	학 년			
	2		3	
	응답수	%	응답수	%
(1) 간혹학을 택하게 된 증기는				
가. 나이팅젤의 업적을 동경하여	2	0.8	3	1.2
나. 인류에의 봉사생활을 하며 살고 싶어서	13	5.3	15	6.1
다. 직업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13	5.3	10	4.1
라. 부모,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권유를 따라서	4	1.6	16	6.5
마. 장래 가정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18	7.3	49	20
바. 기 타	4	1.6	8	3.2
(2) 현재 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 학비가 곤란하다.	12	4.9	8	3.2
나. 기숙사 생활이 적응하기 힘들다.	3	1.2	7	2.8
다. 친한 친구가 없다.	1	0.4	2	0.8
라.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른다.	8	3.2	19	7.7
마. 실습과 관련된 것이나 개인관계	23	9.4	47	25.1
바. 기 타	7	2.8	18	7.3
(3) 현재 자기공부가 부진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가. 시간이 모자란다	9	3.6	19	7.7
나. 능력이 모자란다	3	1.2	7	2.8
다.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다	35	14.3	59	24.1
라. 교과서가 없다	5	2	10	4
마. 기 타	2	0.8	6	2.4
(4)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이해는				
가.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4	1.6	2	0.8
나. 이해하여 주시는 분도 계시다	28	11.4	69	28.2
다. 거의 이해하여 주시지 못하는 것 같다	22	9	29	11.8
(5)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기회는				
가. 흔히 있다	5	2	10	4.1
나. 하고싶으면 언제나 할수있다	12	4.9	33	13.5
다. 하고싶어도 그만둔다	23	9.4	27	11
라. 하고싶어도 기회가 없다	7	2.8	13	5.3
마. 하지 않는다	7	2.8	18	7.3

基 礎 에 關 한 問 題

별		학 교 별						계	
		A		B		C			
4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0	0	4	1.6	0	0	1	0.4	5	2
10	4.1	20	8.2	8	3.2	10	4.1	38	15.6
6	2.4	22	9	5	2	2	0.8	29	11.9
11	4.5	10	4.1	13	5.3	8	3.2	31	12.8
57	23.4	78	31.9	24	9.9	22	9	124	50.9
5	2	3	1.2	9	3.6	5	2	17	6.8
								계 244	100
3	1.2	17	6.9	5	2	1	0.4	23	9.4
5	2	8	3.2	6	2.4	1	0.4	15	6.1
2	0.8	5	2	0	0	0	0	5	2.1
15	6.1	23	9.4	9	3.6	10	4	42	17
34	13.9	64	26.2	22	9	18	7.3	104	42.7
30	12.3	20	8.1	17	6.9	18	7.3	55	22.7
								계 244	100
12	4.9	29	11.8	7	2.8	4	1.6	40	16.4
4	1.6	9	3.6	3	1.2	2	0.8	14	5.7
58	23.7	86	35.2	31	12.7	35	14.3	152	62.3
9	3.6	8	3.2	12	4.9	4	1.6	24	9.8
6	2.4	5	2	6	2.4	3	1.2	14	5.7
								계 244	100
13	5.3	9	3.6	7	2.8	3	1.2	19	7.8
53	21.7	82	33.6	32	13.1	36	14.7	150	61.5
22	9	46	18.8	20	8.2	7	2.8	73	29.9
								계 242	99.2
14	5.7	19	7.8	4	1.6	6	2.4	29	11.9
34	13.9	30	12.3	32	13.1	17	6.8	79	32.4
39	15.9	58	23.7	17	6.8	14	5.7	89	36.5
1	0.4	14	5.7	3	1.2	4	1.6	21	8.6
1	0.4	16	6.5	3	1.2	7	2.8	26	10.6
								계 244	100



(表 6) (學生質問書)

문 항	학 년			
	2		3	
	응답수	%	응답수	%
(1) 임상 실습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가				
가. 1학년 1학기	1	0.4	1	0.4
나. 1학년 2학기	0	0	0	0
다. 2학년 1학기	9	3.6	1	0.4
라. 2학년 2학기	13	5.2	27	10.9
마. 간호학 기초과목이 나 끝난 후에	4	1.6	33	13.5
바. 간호학 기초과목과 병행했으면	26	10.6	37	15.1
(2) 첫번 임상 실습에서 느낀 것은				
가. 불안했다	32	13.1	43	17.6
나. 기대가 컸다	13	5.2	37	15.1
다. 무서웠다	2	0.8	4	1.6
라. 기 타	5	2	14	5.6
(3) 임상 실습을 위해 별실이나 기타 정한 장소 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15	6.1	17	7
나. 가끔 실증이 난다	22	9	48	19.6
다. 항상 긴장하게 되므로 피곤하다	13	5.4	33	13.5
라. 하기 싫다	0	0	3	1.2
(4) 임상 실습지도는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가. 과목담당 교수	43	17.7	65	26.6
나. 임상강사	6	2.4	17	6.9
다. 수간호원	2	0.8	10	4
라. 졸업간호원	2	0.8	8	3.2
마. 없는 것이 좋다	1	0.4	1	0.4
(5) 실습도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의논하나				
가. 담당의사	1	0.4	11	4.5

床 經 驗 에 關 한 問 題

별		학 교 별						계	%
4		A		B		C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0	0	1	0.4	0	0	1	0.4	2	0.8
1	0.4	1	0.4	0	0	0	0	1	0.4
4	1.6	11	4.4	0	0	3	1.2	14	5.7
17	6.9	46	18.6	3	1.2	8	3.2	57	23.4
39	15.9	20	8.1	39	15.9	17	6.9	76	31.2
28	11.4	57	23.3	16	6.5	18	7.3	91	37.3
								계 241	98
35	14.3	70	28.6	20	8.2	20	8.2	110	45.1
45	18.4	45	18.4	28	11.4	22	9	95	38.9
4	1.6	6	2.4	4	1.6	0	0	10	4.1
5	2	12	4.9	6	2.4	6	2.4	24	9.9
								계 239	98
13	5.3	25	11.9	11	4.5	9	3.6	45	18.4
57	23.3	68	28	33	13.5	26	10.6	127	52.1
19	7.7	37	15.2	15	6.1	13	5.3	65	26.7
0	0	3	1.2	0	0	0	0	3	1.2
								계 240	98.8
50	20.4	98	39.3	35	14.3	27	11	158	64.8
22	9	27	11	13	5.2	5	2	45	18.4
8	3.2	4	1.6	4	1.6	12	4.8	20	8.2
8	3.2	8	3.2	7	2.8	3	1.2	18	7.4
1	0.4	2	0.8	0	0	1	0.4	3	1.2
								계 244	100
1	0.4	1	0.4	11	4.5	1	0.4	13	5.3

분	합	학				년
		2		3		
		응답수	%	응답수	%	
나. 등 료		9	3.6	25	11.9	
다. 졸업간호원		3	1.2	20	8.1	
라. 수간호원		2	0.8	21	8.5	
마. 임상장사		9	3.6	7	2.8	
바. 담담교수		28	11.4	7	2.8	
사. 혼자서 해결해 본다		2	0.8	10	4	
(6) 졸업할때까지 간호일(재응용정, 칩상정등, 투약 등)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은						
가. 교육적 의의가 있다.		3	1.2	5	2	
나. 경험을 쌓아 두는 것이 좋다		35	14.3	31	13.1	
다. 공연한 일의 반복이다		11	4.5	58	23.3	
라. 귀찮다		4	1.6	4	1.6	
(7) 임상 실습중에 실시되는 Ward class 는						
가. 꽤 많은 도움을 준다		28	11.4	80	32.7	
나. 다 알고 있는 것임으로 별로 도움이 못된다		3	1.2	5	2	
다. 현재 상태로는 시간낭비다		3	1.2	9	3.6	
라. 기 타		6	2.4	5	2	
(8) 밤번 실습에 대하여						
가. 시간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실효가 있다		26	10.6	32	13.1	
나. 낮실습과 꼭 같으므로 무의미하다		1	0.4	6	2.4	
다. 필요없다		6	2.4	39	16	
라. 필요하다면 얼마쯤의 기간이 가장 좋은지		11	4.5	23	9.3	

별		학 교 별						계	%
4		A		B		C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10	4	37	15.1	4	1.6	3	1.2	44	18
24	9.7	16	6.5	20	8	11	4.4	47	19.3
40	16.4	28	11.4	17	6.9	18	7.3	63	25.9
2	0.8	15	6.1	3	1.2	0	0	18	7.4
7	2.8	30	12.1	2	0.8	10	4	42	17.2
5	2	10	4	2	0.8	5	2	17	6.9
								계 244	100
11	4.5	11	4.5	1	0.4	7	2.8	19	7.8
43	17.6	68	27.8	22	9	19	7.7	109	44.7
29	12.7	48	20	29	12.7	20	4.1	98	40.2
4	1.6	8	3.2	4	1.6	0	0	12	4.9
								계 238	97.8
71	29.1	89	36.4	49	20	41	16.8	179	73.5
4	1.6	5	2	5	2	2	0.8	12	4.9
12	4.8	19	7.7	4	1.6	1	0.4	24	9.8
2	0.8	10	4	1	0.4	2	0.8	13	5.3
								계 228	93.5
42	17.2	58	23.7	24	9.7	18	6.7	100	41
7	2.8	6	2.4	1	0.4	7	2.8	14	5.7
12	4.8	16	6.5	29	11.8	12	4.8	57	23.4
23	9.3	41	16.4	5	2	11	4.5	57	23.4
								계 228	93.5

에서 29.9%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工夫하는 도중에 「自己 의사를 발표할 機會는?」에 對照해보면 「흔히 있다」11.9%, 「하고싶어도 기회가 없다」8.6%, 「하지 않는다」10.6%트 「하고 싶으면 언제나 할수있다」32.4% 이나 「하고싶어도 그만둔다」36.5% 를 보이고 있어 機會는 많이 있으나 의사를 發表하지 않는 편이 더 많은것을 보여준다. (表 5)

臨床實習 經驗에 關한 質疑應答에서

看護學 履修過程에서 必須要件으로 되고 있는 「臨床經驗을 언제부터 始作했으면 좋겠는지?」에 對한 應答은 表 6~1과 같이 「看護學 基礎科目과 並行했으면」이 37.3% 「看護學 基礎科目이 다 끝난 後에 하는 것이 좋다」가 31.2%트 거의 비슷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첫번 臨床實習에서 느낀 것은?」에 있어서는 表6~2 와 같이 「不安했다」가 45.1%로 가장 많고 「무서웠다」는 4.1%로 弱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첫번으로 患者를 對象으로 實習하게 된다고 하는 不安은 正常的인 反應이라고 보겠으며 「무서웠다와 其他」의 느낌이 9.9%를 보이고 있어 患者 또는 疾病에 對한 不快感 또는 忌避感은 極히 적은 것이라는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臨床實習을 위해 病室이나 其他 定한 場所에서 여러가지 經驗을 하게 되는데」에 對한 感覺은 表 6~3과 같이 나는 「가끔 싫증이 난다」에 52.1%로 가장 많고 「這常 緊張하게 됨으로 피로하다」26.7%로 二位를 보여준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에 18.4%의 反應은 看護學을 擇하게 된 動機로서 「人類에의 奉仕」에 15.6%와 거의 비슷한 反應을 보

여주고 있다.

「臨床實習指導는 누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質問反應은 表 6~4와 같이 「科目擔當教授」64.8% 「臨床講師」18.4%로 集中的이고.

이와 關係된 問題로서 「講義와 臨床指導를 兼하고 계십니까?」란 對教授質問의 反應은 表 6~9에서와 같이 「兼하고 있다」가 71%를 보이고 있어 學生들의 要求와 符合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表 6~10에서와 같이 「講義와 臨床 實習指導를 兼하고 있어서 「잘 안된다」가 59%로 「效果의으로 進行된다」보다 더 높은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臨床實習途中에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의 議論相對에 關해서는 表 6~5에서와 같이 「看護職員」25.9% 「卒業看護員」19.3%로 事實上 臨床指導를 擔當하게 되는 責任看護員에게 依存하고 있는 狀態이고 「同僚」와 議論하는 率이 18%트 同當教授와 議論하는 率보다 많음을 보여준다.

「卒業할 때까지 같은 일은 되풀이 하는 것에 關한 意見」은 表 6~6에서와 같이 「經驗을 쌓아두는 것이 좋다」가 44.7% 「공연한 일의 反復이다」40.2%로 相反된 意見에 비슷한 比率를 보여주고 있다.

「夜間實習에 有効성에 關해서」는 表 6~8에서와 같이 「有効하다」41%, 「必要없다」23.4%로 나타 났고 이에 對한 教授反應은 表 6~12에서와 같이 「有効하다」50% 「必要없다」50%트 나타나고 있어 教授對 學生의 見解差를 나타내고 있다.

「臨床實習時에 實施하는 Ward: Class에 關해서는 表 6~7에서와 같이 「꽤 많은 도움을 준다」가 73.5%로 가장 높

(表 6)

## 教 授 質 問 書

문	항	응	답	수	%
9.	강의와 임상지도를 결합하는지				
	가. 결합하지 않는다	6		29	
	나. 결합하고 있다	18		71	
10.	강의와 임상지도를 결합하고 있어				
	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7		41	
	나. 결합하고 있어서 잘 안된다	10		59	
11.	임상지도가 잘 안되는 이유				
	가. 다른 업무로 시간이 부족	8		88	
	나. 임상현장의 대인관계	1		22	
12.	밤번 실습경험은				
	가. 학습 경험상 꼭 필요	12		50	
	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12		50	
	다. 학생을 피로하게만 만든다	—		—	
13.	Ward Conference (Class)는				
	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한다	24		100	
	나. 안한다	—		—	
	다. 시간낭비다	—		—	

고 「다알고 있는 것이므로 별 도움이 안된다.」 4.9%, 「現狀로서는 時間浪費이다」가 9.8%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對한 教授들의 反應은 表 6~13에서와 같이 「効果적이기 때문에 꼭 한다」가 100%로 絶對的이다.

## 學習指導에 關한 問題로서

「學習指導計劃時 學生 參與與否에」關해서는 表 7~1에서와 같이 「參與한다」 25%, 「안한다」 25%로 같은 反應을 보

이고 「時期尙早」라는 意見에 50%로 나타나고 있어 學生指導計劃에 學生이 參與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教授法에 對한 大體의인 傾向을 물음에 있어」學生들의 反應은 表 7~5에서와 같이 「講義中心」이 61.4%, 「暗記中心」이 19.3%로 集中的 反應을 보여주며 「學生活動中心」은 1.2%로 「實習中心」 18.3%로 나타내고 있어 看護學에서 強調되고 있는바 理論과 實際의 一致 또는 活

動中心의 方向과는 相反되는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授法에 關한 「教授反應을 보면」表 7~2 에서와 같이 「劃一的이 되기 쉽다」 「注入式教育이 된다」가 各各 33%와 21%로 「個人差의 考慮」가 33%, 「集團活動」이 13%로 나타나고 있어 教師와 學生間의 反映은 若干의 差를 나타내고 있다.

學生指導를 위해 「關係權威者를 招請한다」에 關하여는 表 7~3 에 있어서와

같이 「招請한다」가 54%로 「招請안한다」 「여러가지 條件때문에 招請못한다」가 各各 21%와 25%로 나타나고 있어 招請하는 便이 더 많다.

이에 關聯된 問題로서 「講義時補助資料使用」에 關한 反應은 表 7~4 에서와 같이 比較的 쉽게 얻을 수 있는 「포스터, 圖, 모델」의 使用이 52% 그리고 「필름, 슬라이드」도 48%로 거의가 適當한 補助資料를 使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7) 學習指導에 關한 問題  
(교수질문서)

문	항	응답수	%
1. 계획시 학생참여	가. 한다	4	25
	나. 안한다	4	25
	다. 시기상조	8	50
2. 강의	가. 개인차에 중점	8	33
	나. 획일적이 되기 쉽다	8	33
	다. 주입식 교육이 된다	5	21
	라. Group 활동배려	3	13
3. 관계 권위자 강의여부	가. 초청한다	13	54
	나. 초청안한다	5	21
	다.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초청못한다	6	25
4. 보조재로 사용(시설)	가. Film, Slide	14	48
	나. Record, Radio	—	—
	다. Post, Chart, Model	15	52

(表 7)

## 학 생 질 문 서

문 항	학 년 별						학 교 별						계	
	2		3		4		A		B		C		계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5)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들의 교 수업은 대체로:														
가. 강의중심이다	36	14.7	55	22.6	59	24.1	75	30.8	46	18.8	29	11.8	150	61.4
나. 실습중심이다	5	2	16	6.5	23	9.5	25	10.3	12	4.9	7	2.8	44	18.1
다. 암기중심이다	12	4.9	30	12.3	5	2	34	13.9	1	0.4	12	4.9	47	19.3
라. 학생활동중심이다	1	0.4	0	0	2	0.8	3	1.2	0	0	0	0	3	1.2
계													244	100

學習評價에 관한 問題로서 :

試驗問題의 「出題傾向」은 表 8~1에서와 같이 「꼭 알아야 할 問題를 낸다」가 52%, 「目的에 符合되는 問題」가 48%로 나타났다.

評價方法은 表 8~2에서와 같이 「學習態度를 考慮할」이 40%인데 비해 「學生의 發展度測定은 不過 6%를 보이고 있다.

看護學 專攻科目의 一部로 施行하고 있는 臨床實習에 對한 評價에 있어서 「學生들의 臨床實習評價는 누가하나?」의 應答은 表 8~5에서와 같이 「감독職員」이 62.7%로 斷然 많고 「聽當教授」가 20.9% 「卒業看護員」이 11.5%, 「臨床講師」가 4.9%의 順位를 보여주고 있다.

그 「評價에 對한 學生의 反應」은 表 8~6에서와 같이 「公正하다」 4.5% 「너 잘할 惹怒을 복돋아 준다」 2.9%이며 「그저 그렇다」 47.2% 「不公平하다」 38.5%

로 이를 습치면 85.7%의 不信을 보여준 셈이다.

評價方法에 對한 教授의 見解도 表 8~3과 같이 「別意義가 없다」 8% 「公正치 못하게 되는 點이 많다」 92%로 나타나고 있다.

實際로 臨床實習評價가 公正하지 못함을 들어 내고 있다.

「評價를 爲해 使用하는 資料」에 關해서는 表 8~4에서와 같이 「指定된 評價表」가 63%로 그중 많고 다음이 「逸話記錄」으로 20%로 나타나고 있다.

教授들은 그 是正方案으로서 意見を 보면 客觀的인 評價資料의 綜合使用, 評價者—臨床指導教授, 「方法에 對한 繼續的인 檢討」를 들고 있다.

教育課程計劃 및 運營問題에 關한 面接과 質問書反應에 나타난 結果를 綜合해 보면 「看護教育課程 研究委員會가 있



(表 8)

(教授質問書)

## 學習指導에 關한 問題

문항	응답 수	%
8~1 시험문제를 출제하실 때 가. 꼭 알아야 할 것을 낸다 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낸다 다. 어려운 문제만 골라낸다	16 15 —	50 48 —
8~2 학습평가 방법 가.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만 시험을 본다 나. 수시로 본다 다. 필요에 따라 본다 라. 각 학생들의 발달도를 측정하도록 노력한다 마. 학습태도도 고려한다	9 3 13 6 18	20 6 28 3 40
(학생질문서) 8~3 임상실습평가는 누가 하고 있는가? 가. 담당교수 나. 임상강사 다. 수간호원 라. 졸업간호원	51 12 153 28	20.9 4.9 62.7 11.5
8~4 실습평가에 대하여 가. 공정하다 나. 더 잘할 의욕을 북돋아 준다 다. 그저 그렇다 라. 불공평하다	11 7 115 94	4.5 2.9 47.2 38.5
(교수질문서) 8~5 귀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실습평가 방법에 대하여 가. 고루적이다 나. 하기는 하나 별 의의가 없다 다. 공정치 못하게 되는 점이 많다	— 2 22	— 8 92
8~6 귀교에서 학생실습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가. check list (학교에서 지정한) 나. anecdotal record 다. self evaluation sheet 라. test	19 5 3 2	63 20 10 0.7

다」75%, 「大學當局者가 한다」25%로 나타났고 教育課程研究活動의 參與에 關해서는

委員으로 參加한다 37%

部分的으로 參與한다 26%

全然 아니한다 37%로 그 現況을 보여 준다.

學生의 各種 適性을 얻기 爲한 活動은 各種調查 48%, 個別指導 43%, 心理檢査 9%로 나타나고 있다.

看護學科 教科目的 統合, 新設, 및 時間의 增減에 關한 教授의 意見中 統合에 對한 意見으로는:

① 看護道德, 看護倫理, 看護史 等 看護社會學分野의 統合

② 解剖學, 生理學

③ 保健看護學, 寄生蟲學,

④ 內科看護學, 外科看護學, 基礎看護學, 病理學

⑤ 精神看護學, 營養學, 藥理學

時間減少에 對한 意見으로는

體育, 外國語, 宗教 等を 들고 있다.

## V. 總 括

###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課程의 現況

本 論文이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는 大學의 要覽, 案內에서 表明한바 教育目的을 綜合해보면 大學看護教育의 目的은 專門職 看護員의 養成이고 이에 必要한 知識, 技術, 教養을 지니게 함과 同時에 指導者의 資質을 길며 國民保健에 이바지 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學程表를 보면 看護學 主科目을 專攻必須, 教養必須, 教養選擇, 教職科目들로 나누고 있는데 其中의 教養選擇科目은 반드시 選擇해야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어 事實上 選擇科目은 없는 것과 같다. 이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은 文學 또는 藝術科目들을 包含한 人文系의 選擇이 絶對的 希望으로 反映되었고 이와 같은 反應은 부라운(Brown)의 教育課程에서도 看護學生들에게 藝術의 機能을 나타낼 수 있는 選擇科目이 必要하다고 強調되어 있음과 符合되는 意見이라 볼수 있다. 이러한 選擇科目들을 通하여 學生들은 自己의 趣味와 特技를 나타내며 發展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學校生活의 滿足을 느낄수있게 하는 뜻에서나 혹은 恒常 生命의 現狀과 疾病을 다루게 됨으로 지니게 되는 緊張感, 冷淡性 등을 解消시키고 思考와 生活의 調和를 形成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고 하는 意味에서도 이와 같은 選擇科目의 設定은 必要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위의 看護學 主科目을 人文學科目, 社會學科目 看護學 基礎科目과 看護學 臨床科目으로 區分한 各分野의 學點比重을 比較해보면 세 大學이 다 같이 專攻科目을 3分の 2 以上으로, 人文과 社會科目을 3分の 1 보다 가볍게 다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을 부라운(Brown)의 教育課程에 것과 對照해볼때 臨床科目에서는 超過를 나타내고 社會學科目에서는 不足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라운의 引用한 바를 標準이라고 假定한다면 위 세 大學의 教育課程을 調整해 나감에 있어 A의 境遇 人文系 科目들을 社會學科目으로 B는 看護學 基礎科目과 看護學 臨床科目에서의 超過를 社會와 人文系 科目으로, C에 있어서는 看護學 基礎科目과 臨床科目에서의 超過를 社會, 人文系 科目들로 바꾸는 方向으로 調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看護學教授들에게 質問한바 專攻科目對 教養科目의 理想的比率에 對한 反應을 보면 集中的으로 4:1 比率에 贊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같은 傾向은 朴의 (1962)의 調査結果에서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의 發達の 背景과 아울러 教育課程 發展上의 傳統的意味를 더욱 굳게 해주는 것이라 볼수있는 것이며 그런대로 3:1 比率에서 次位의 反應을 보여 줌은 現職教授들의 大學教育의 姿勢를 위한 意慾的 表示로 보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大學의 看護學臨床科目의 學點分布와 實習狀況인데 그 學點配當에서는 큰 差를 볼수없으나 實地로 實習하고 있는 時間配當에서는 A와 B의 경우 倍以上의 顯格한 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現在 實習量에 對한 學生 質問反應에서 보면 A와 C校에서는 實習이 많다고, B校는 적당하다고 나타나고 있어 看護學基礎科目에서의 講義와 實習 2:1 比率보다는 看護學 臨床科目에서는 더 많은 實習時間이 要求된다고 하는 檢證이 따라야 하겠다.

그리고 各大學 看護教育의 特殊性에 關한 教授들의 應答을 보면 A校에서는 臨床實習을 重點的으로 하여 졸업후 社會에 나가서도 조금도 躊躇함없이 그 實力을 發揮할 수 있게 하느라 있다고 하였으며 C校에서는 教養教育에 濫重하는 한편 保健看護教育을 重視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上의 特徵들은 各大學의 教育理念 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으나 傳統이라든가 看護教育에 對한 觀念 等의 差에서도 影響될 것이고 또한 臨床實習 施設狀態의 反映으

로도 볼수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教授 質問應答에서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의 基本的인 統一性에 關한 意見を 보면 그 基本的 統一性이 維持되고 있어야 함을 認定은 하나 더 研究해야 할 問題로 보고 있다.

教育課程基礎에 關한 問題로서 學生들이 看護學을 擇하게 된 動機를 將來 家庭生活에 必要해서에 가장 높은 反應을 보여 주고있다. 이것은 大學教育에 대한 女學生들의 認識이 職業 準備라기보다 賢母良妻로서 갖추어야 할 教養 教育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같은 反應은 朴(1962)의 연구와 중앙대학교 교육학회(1964)의 대학생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간호학을 工夫하고 있는 學生들에게 가장 어려운 問題로는 實習中 對人關係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看護學을 工夫하는 過程의 一部로서 毎日 해야 하는 臨床實習과 그 實習環境에서 원새 없이 對해야 하는 患者와 保護者, 그리고 數 많은 同職者들과의 人間關係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學生들로서는 가장 適應해 나가기 힘든 것이라 생각할수 있고 그 影響을 工夫가 不振한 理由로서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할 문제와도 關聯지어 볼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反應은 崔(1964년)의 看護學生들의 問題調査結果에서도 個人의 內在의 問題 다음으로 큰 課題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成年 初期에 있는 그들로서는 언제나 苦痛에서 헤매는 患者들을 대해야하며 또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社會의 不條理와 또 할 수 없이 대해야 하는 患者와 訪問客들의 看護學生에 대한 그릇된 認識들로

마음의 葛藤을 일으켜 授業時間 또는 조용히 工夫해야 할 저녁시간에까지 影響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特殊한 環境에서 공부하고 있는 學生들에 대한 教授님들의 理解는 理解해주는 본도 제시대에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 거의 理解하여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意見과 자기 의사를 發表할 機會는 많으나 하고 싶어도 그만 된다 라는 反應 또한 많으므로 학생에 대한 教授님들의 特別한 理解가 促求되는 同時에 學生들이 언제나 찾아가서 議論할 수 있는 相談教授(Counselor)의 必要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수 있다.

臨床學習經驗 組織에 關한 問題로서 臨床科目의 實習經驗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學生의 反映은 기초간호학 科目과 같이 併行했으면 easier와 기초간호학 과목을 끝낸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에서의 비슷한 反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臨床實習과 關聯된 여러 疑問에서 첫번 實習에서 (不安했다)가 그중 많고 “무서웠다”는 學生은 극히 적어 患者 또는 疾病에 대한 忌避感 不快感은 큰 問題가 안되는 것 같다. 이와같은 反應은 崔(1964)의 調查結果에서도 간호교육面에서 學生으로서의 適應이 질병 또는 看護을 目擊하는데 따르는 不安, 恐怖에서 보다 社會認識의 缺如로 나타나고 있을 파 같다. 이와 같은 病室實習을 언젠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라는 學生의 比率는 看護學을 擇하게 된 動機로서 人類에의 奉仕生活을 하고싶어서 라는 反應과 거의 같은 比率를 보여주고 있어 그들의 生活觀, 人生觀이 生活態度에 反

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學生들은 臨床實習指導를 “看護學科目 擔當教授나 또는 臨床講師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意見이고 實地로 講義와 實習을 兼하고 있는 教授가 大部分이나 先生님들은 講義와 實習을 겸하고 있어서 指導의 効果를 올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理由를 다른 業務때문에 時間이 不足해서 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反映은 現 看護教育이 制度上으로는 體制를 갖추고 있으나 그 運營面에 있어 많은 矛盾을 內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臨床實習에서 가끔 실증이 난다던지 또는 하기싫다 라는 意見에 關聯시켜 卒業할때까지 一般의인 看護日課를 反復해서 實習하는 것이 “經驗上 좋다” 또는 公認한 일의 反復이란 相反된 意見에 비슷한 比率의 反應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臨床講義(Ward Class)의 價値는 教授와 學生이 다같이 絶對的으로 認定하고 實施에 努力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學習指導計劃에 學生參與與否에 關한 教授對 質問書 反應에서 學生參與는 時期尙早라는 意見이 絶對的임으로 相當한 難點임을 들어내고 있으나 이와같이 적은 集團을 相對로 現地教育을 計劃함에 있어서는 學生을 參與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學生으로 하여금 患者에 대한 看護計劃을 세우고 施行하며 分析하게 하는 등 自律的이고 啓發的인 研究活動을 促進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學習指導에 關한 問題로서 學習指導를 計劃할때 學生이 參與한다고 한 應答은 극히 적은 數이고 時期尙早라고 한 意見이 支配的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學

生意見이 反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Gallagher는 學生參與로서 學生의 要求를 全的으로 反映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보라도 將來의 學習指導計劃을 위한 준비로서 訓練시키는데 더 큰 意義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리고 看護教育을 爲한 學科課程은 看護의 必要性和 看護教育의 必要性에 基礎를 두어야 하지만 教育課程을 發展시키려던 Spalding이 말한바와 같이 오늘날의 看護學生의 要求에 比準을 두고 同時에 社會要求에 配慮하는 것이 좋은 方案이 될 것이다.

다음 教授法에 對한 傾向은 學生과 教授의 意見이 다 같이 講義中心, 暗記中心 注入式으로 되고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看護教育에서 強調되고 있는 理論과 實習의 一致, 또는 個人 或은 集團活動中心의 教育과는 距離가 있게된다.

다른 一面으로는 權威者를 招請하여 特別 講義를 들게 한다든지 또는 學習效果를 위해 多樣한 補助資料를 充分히 利用하는 進取的인 面도 옛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 學生活動 中心이라기 보다는 教授活動의 中心인 것을 알려준다.

이에 關한 새로운 경향은 배우는 方法 自體도 배우는 科目만큼 重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方法도 극적인 變化를 보게 되었으므로 每日 暗誦할 必要는 없게 되었다. 問題視되는것 Topic으로 나타난 것을 學問의 體驗으로 삼으면 되며 선생과 학생이 같이 계획하고 일하며 토론하므로써 變化있는 생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전과 같이 교과서 한편에만 依存할 必要는 없게 되는 同時에 여러 種類의 參考文獻, 映畫, 라디오, 테

레비전 등의 補助資料도 使用할할 알게 될 것이고 도서관은 보다 기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學習評價에 關한 問題로서 學習評價를 위한 試驗問題는 꼭 알아야 할 問題만을 낸다는 反應이 가장 많고 評價方法에 있어서는 學生의 發展度를 測定하여 評價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적다.

다음으로 臨床實習評價에 대한 教授와 學生의 反映이 다 같이 公正치 못하다가 壓倒的이다. 이와 같은 反應은 看護教育에 있어서도 教育評價의 科學的인 方法을 위한 研究가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위 反應으로 볼때 學科, 臨床實習 兩面의 評價가 많은 矛盾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矛盾의 焦點으로서 學生에게 期待하는 學習目的의 認識 與否와 아울러 評價資料, 評價方法, 評價者 등에 대한 再檢討가 要望되고 있는 문제이다.

教育課程의 計劃 및 運營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는 세 大學이 다 教育課程 研究委員會는 設置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직원들은 그 委員으로 或은 必要에 따라서 參與하나 全然 關與하지 않는 직원도 있다고 하였다.

이 委員會에서는 學生 理解를 위한 各種調查와 指導 活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面接을 통해 본 見解로는 大學全體 計劃에 따르는 정도이고 看護教育課程의 發展을 爲한 自體의 研究活動은 거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物的 人的 資源의 不足과 其外 여러 制約이 따르고있는 것이 또한 事實이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좀더 熱意있는 活動이 要求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學問의 새로운 傾向과 現 看護學 科目의 時間不足, 過重한 學點 등을 調整 해갈 方案으로서 教授들의 意見을 綜合 해보면 科目統合의 意見으로 看護學 基礎科目과 臨床科目, 看護學臨床科目, 間 의 統合, 社會科學 分野의 統合으로 나타났고 時間의 減少는 體育, 外國語, 宗 教科目 등에 意見을 모으고 있다.

결국 이러한 問題들은 現在 公式화된 漠然한 教育目標을 教育 計劃에 反映 시킬수 있도록 明確한 指針으로서의 具體화된 目的設定이 時急한 要求로 나타 나는 것이다. 故로 大學看護教育發展을 위한 教授들의 意見을 綜合해 보면 大學 마다 設置되어 있는 教育課程委員會를 강화하여 積極의인 研究活動을 展開할 것 과 看護學全科目的 教授要目を 作成하여 학교에 備置하고 담당 教授가 移動되더라도 全體 計劃에 變動이 없게 對備할 것 과 不必要한 重複을 피하는 동시에 必要한것을 빠트리지 않도록 할것 등이다. 그리고 臨床 實習을 爲한 施設의 擴充과 大學當局은 教養科目과 共通科目의 時間 配置에 있어서 看護學科의 特殊한 立場을 考慮해 줄것 등으로 되어 있다.

現 學生들의 意見은 大學看護學科 卒業者에 대한 대우문제로서 物的인 優待도 要望되는 것이나 就職 또는 外國 遊出에서 經歷이 要求될때 看護學校 卒業者와의 公認된 差別 두어 주도록 關係要路에 懸議할것 등으로 되어 있다.

## VI. 結論 및 提言

앞에서는 本 研究에서 目的한 바 우리 나라 大學看護教育課程의 發展과 向上을 위해 이미지하게 될 資料로서 教育課程

構成의 諸般 原理를 考察하였다. 여기서 教育課程의 發達로부터 온 새로운 概念과 이로 인한 教育理念의 變化, 看護學의 性格과 大學 看護教育에 對한 社會의 要求 그리고 學生 個人에 대한 새로운 關心들로부터 教育內容, 教育方法에서 教育評價에 이르기까지 傳統 또는 主觀의 인 信賴보다 科學의인 方法을 採擇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한편 文獻, 質問書, 面接 등의 여러 方法에 依한 調査로서 現在 우리나라 大學 看護教育課程의 實際를 把握하였고 이를 分析한 結果 나타난 問題들을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 大學看護教育課程의 發展과 向上의 示唆 乃至는 改善方案을 提示코자한다.

### 提 言

1. 大學 當局은 看護學生들의 特別한 學習 環境을 理解하고 可能한 모든 便宜를 提供할 것과 學生의 趣味 特技의 助長으로 適足한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多樣한 選擇科目을 마련할 것이 바람직하나 學校形便에 따라서는 課外活動의 指導로서 補充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調査結果로 나타난 바에 依하면 看護學生들이 가장 適應해 나가기 어려운 問題는 對人關係에서의 適應이다. 이를 위하여 社會, 個人, 文化, 行爲 등에 대한 理解를 增進시킬 수 있는 科目을 補強할 것과 아울러 臨床 實習 指導를 철저히 하면 쓸데없는 不安은 除去될 수 있을 것이다.

3. 教授와 學生間의 理解 增進을 위해 서는 相互의 努力이 切實히 要求되며 學校로서는 그 해결책으로서 相談教授 (Counselor)를 두는 일과 看護學課程에

대한 適應指導(Orientation Course) 를 강화할 것이 要望된다.

4. 學習指導計劃에 學生들의 參與를 試閱할 것과, 講義中心, 教授中心의 學習活動을 止揚하고, 學生中心, 學生活動中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教授들에 대한 現職教育이 必要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5. 學習經驗의 繼續性, 系列性, 統合性의 維持를 위해 現 教育內容을 再檢討해야 하며 그 方案의 하나로 各學科目을 위한 具體的인 教授要目을 作成하여 學校에 備置할 것과 이에 대한 恊別한 研究를 해야 할 것이다.

6. 臨床學習經驗에 關한 문제로 나타나는 반면, 방학중 실습과 보편적으로 간호학은 실습이 너무 많다. 또는 어렵다고 하는 觀念의 是正을 위해 臨床實習의 期間과 時期, 經驗의 反復 등의 意義와 影響, 效果에 대해 實驗的研究를 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評價方法에 대한 再 檢討와 계속적인 研究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臨床實習成績의 公正을 期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質習指導를 잘못하게 되는 원인은 除去되어야 할 것이나 現實的으로 不可能할 경우 代案을 講究해야 될 것이다.

7. 機能的 教育課程이 되기위해 教育課程研究에 全 職員과 上級班 學生代表도 參與케 하며 계속적인 評價로 그 適否性, 良好度, 妥當度가 檢證되어야 하며 이러한 研究活動을 적극 獎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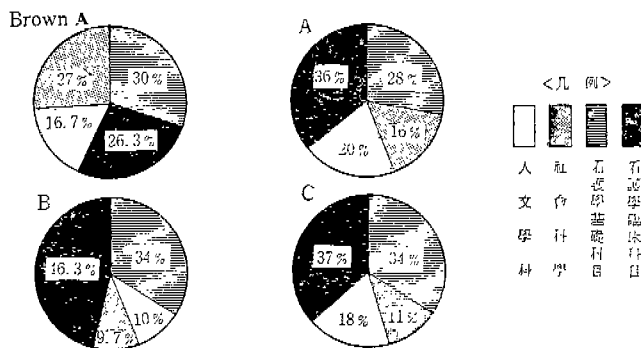
이와 같은 問題解決을 위하여 具體的으로

1) 學生의 問題, 活動, 要求, 興味 등을 具體的으로 調查하며 또한 社會調查, 學生들의 專攻에 對한 態度, 學科目的의 有用度 등을 調查하여 教育課程構成과 運營에 反映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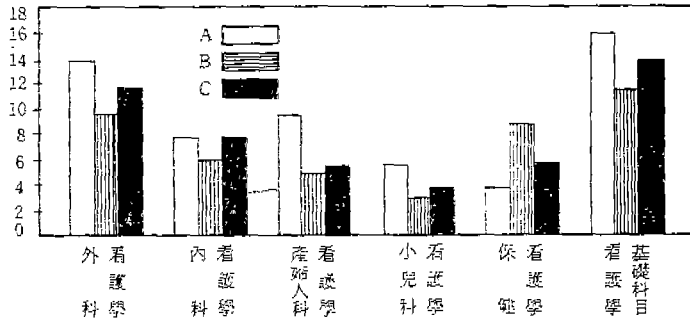
2) 모든 教授들의 教育目的의 指針이 될 具體的인 看護教育目的의 設定 또한 時急히 要請되는 問題中의 하나이다.

3) 大學 看護教育의 基本的인 統一性與否에 關하여 研究하며 各 大學이 聯合하여 現職教育問題解決 등을 共同으로 한다면 여러면의 利點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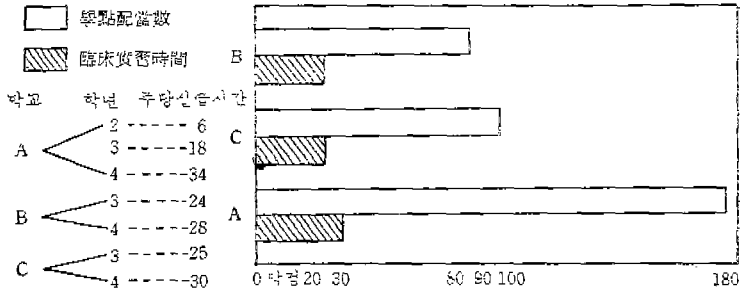
(表 1-1) 學科別 敎科內容의 學問分野別 百分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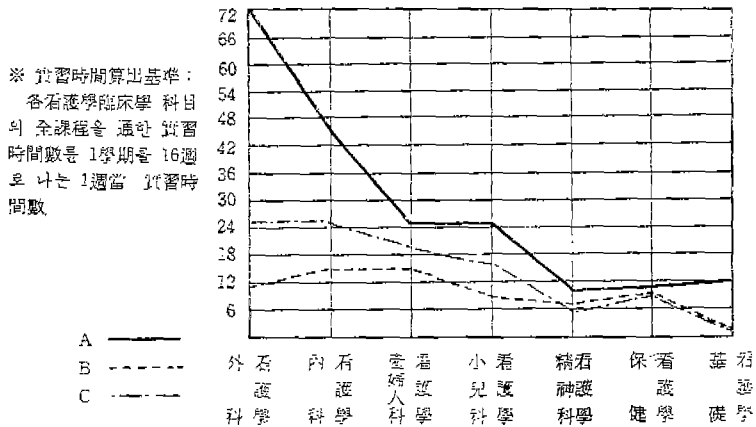
(表 2) 學校別 看護學 臨床科目의 學點分布狀況



(表 3) 學校別 臨床實習時間에 學點 配當狀況



(表 4) 學科別看護學臨床科目의 實習實態





—ABSTRACT—

**A STUDY OF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IN KOREA**

Ik Do Choi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 Young  
Hong)

The Purpose of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nurse with adequate capabilities and this requires not only specialized knowledge but broad general knowledge, competent technical ability and qualities of leadership. In order to know if these qualifications are being me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curriculum.

Since the purpose of this particular study was to obtain fundamental data that would help to promote and develop process of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in Korea, the various applicable principles needed to formulate adequate curriculum were reviewed in various documentary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the educational process. It was confirmed, however, that it is necessary to use the scientific method rather than traditional patterns or subjective ideas in order to obtain fresh concept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cess, the changes in educational philosophy, the nature of nursing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the concern for individual student needs, the educa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evaluation. In order to grasp the general educational practices of collegiate nursing in our universities, information was collect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school catalogue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First of all, questionnaires were sent to professors of nursing, in each university with a nursing department. Then questionnaires were sent to student nurses in these schools, in these schools, in the sophomore, junior and senior years, since they had already had considerable experience in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Thirty questionnaires for professors and 267 questionnaires for students were sent respectively on November 18, and on December 4, 1965, 25 of the professor's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244 of the student's questionnaires were duly receiv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it was found that, most students chose to major in nursing because they felt it might be useful and necessary to their future home life(50.9%); they wanted to have an opportunity to study humanities as electives (89.8%), and the main problems which student nurses encountered appeared to be difficulties in relation to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42.7%). And

also they agreed to an extent that their clinical experience should be supervised by professors of nursing. As a matter of fact, it was the prevailing opinion, that the professors' inadequate clinical supervision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professor's excess workload consisting of lectures, and other duties.

Professors and they also recognized that appraisal of clinical experiences of students are often found to be biased.

In view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garding the educational process and its principles of formation above, a few sugges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or Korean nursing education.

<參 考 文 獻>

- Adams, M. P., Allen, E.L., Murphy, M.R.: Report on Survey of School of Nursing Republic of Korea, 1960.
- Allen, D.E.: Core Content in the Basic Curriculum.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5 286~288, 1953.
- Bidgemen, M.: Collegiate Education for Nursing.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96-122. 163-177, 1953.
- Brown, A.F.: Curriculum Development. W B. Saunders Co. 1960.
- Brown E.L.: Nursing for the Futur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48.
- 梨花女子大學校案內, 1964.
- 鄭疏談: 教育課程, 培英社, 서울. 1956.
- 現代教育叢書: 教育課程, 大韓教育時報社, 1960.
- 現代教育叢書: 教育原理, 現代教育叢書出版社, 서울, 1962
- 洪信永: Selecting Learning Experiences, 延世大學校醫科大學看護學科保管(홍사돌)
- Heidergerken, L. E.: Teaching in School of Nursing. J.B. Lippincott Co., 2nd ed., 1953.
- Heyse, M.F.: We Share Curriculum Planning. Nursing Outlook, 6:9, 532-534, 1957.
- Jhonson, D.E.: A Philosophy of Nursing. Nursing Outlook, 7:198-200, 1959.
- Julian, F.: Final Report on Nursing Service and Nursing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61.
- 李金田譯: 看護史, 大韓看護協會教育部, 서울, 1954.
- 李松姬: 大韓看護協會의 職務와 活動, 大韓看護誌, 1: 14-15
- 李永福: 看護學科設置 15週年略史, 이대간호, 창간호 1965.
- Macgregor, F.C.: Social Science and Nursing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57:7, 899-902, 1957.
- Major, D.M.: A Profession its growth and Development. Nursing Outlook, 11:1, 33, 1963.
- Mercedes, Sleeper, R. Patterson, L.B., Carnegie, M.E.: sing the Nursing Ability Study in Curriculum Plann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52:12, 1482-1488, 1952.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 in Nursing, Leading to A Diploma. 1958.
- National League of Nursing Education: Objectives of Educational Program in Nursing. Division of Nursing Education, N.L.N., New York, 1955.
- National League of Nursing Education: Developing a Basic Nursing Curriculum (The Process and the Problems), Dept. of Diploma and Associate Degree Program. N.L.N., New York, 1958
- 法令第20輯, 文教法令, p. 10
- Patterson, L.B.: Research in a Basic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Nursing Outlook, 53:12, 583-584, 1963. (95 P. 계속)